
부산출신 의열단원 朴文燾의 항일활동

김재승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目 次

- | | |
|-----------------------------------|--------------------------|
| I. 서 언 | IV. 의열단의 막후인물 朴文燾 |
| II. 진보적 민족주의자 박문희의 가계(家系) | 1. 박문희의 항일활동 |
| 1. 부친 박용한과 박문희의 형제들 | 2. 박문희가 포섭한 입교지원자들 |
| 2. 박문희 형제의 항일투쟁 根源 | 3. 남경에서의 朴文燾 · 李陸史 · 尹世靑 |
| 3.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 박문희 | 4. 박문희의 피체와 투옥 |
| 4. 박문희 형제가 주도한 여동생 박차정의
국내탈출작전 | V. 결 언 |
| III.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 | 참고문헌 |
| 1.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 국문초록 |
| 2. 1기 졸업생의 국내밀파 | Abstrac |

1. 서 언

부산 동래출신 박문희(朴文燾 또는 朴文熹, 1901~1950년 6월 말 피난도중 行不)·박문호(1907~1934년) 형제는 일제에 항거했던 투사였으나 그동안 변변한 연구논문 한 편 없이 잊혀져왔다. 여동생 박차정(1910~1944년)은 1995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8월 9일 문화방송에서 광복절특집 「大陸의 들꽃 朴次貞」이 방영되었고, 2006년 5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동래 生家は 「박차정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문희·박문호 형제의 생가이기도 한 이곳에서 이들의 항일사적은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박차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傳記(경성대 강대민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신라대 이송희 교수, 여성문화여론연구소 강영심, 경남대 박태일 교수)도 있었으나, 그녀를 북경으로 불러들려 의열단장 김원봉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작은오빠 박문호였고, 김원봉·박차정 부부의 요청을 받고 1932년 10월 중국 남경에 개설되어 의열단간부학교로도 알려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이하 ‘조선혁명간부학교’로 약칭함)¹⁾에 1기 입교생 5명을 보낸 것은 큰오빠 박문희인데, 이러한 두 형제의 항일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형제 3남 1녀 중에서(장녀 박수정은 1928년 병사) 3명이 항일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대한제국 탁지부 측량기사였던 부친 朴容翰(1883~1918년)²⁾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분하여 1918년 1월 다대포에서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막내동생 박문하(1918~1976년)는 바가 있었다.³⁾

이렇게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박문희·박문호 형제는 여동생 박차정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항일투사이다.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형 박문희는 김원봉·박차정 부부의 부탁으로 부산으로 돌아와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을 선발해서 비밀리 보냈고, 이들 졸업생들은 졸업 후 국내로 밀파되어 지하활동 중에 체포됨에 따라 그는 배후

1) 대외적 명칭은 중국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 이것은 일제의 감시를 의식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칭이며, 의열단장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 자신들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로 불렀다.

2) 당시의 이름은 朴祥昱. 1908년 발행 『대한제국 직원록』에 의하면, 그는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量地課 대구출장소 소속으로 근무지는 淸道였다.

3) 박문하, 수필 「첫 사랑」, 부산일보 1960년 2월 3일자에 발표.

인물로 체포되어 부산형무소에서 2년 실형을 살았다. 한편, 중국 천진에서 같은 동포의 밀고로 일본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된 동생 박문호는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인근 우라카미(浦上)형무소에서 복역했다. 그는 다시 북경 레닌주의정치학교사건으로 1933년 10월초에 동래 자택에서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34년 4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검찰의 심문을 받던 중 가석방 되었으나 한 달도, 되지 못해 사망했다. 중국 천진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받은 수형생활 여독 속에서 다시 강도 높은 일경과 검찰의 고문이 사망원인인 殉國이었다.

부산지방 항일투쟁사에서 잊혀져 있는 박문희·박문호 형제의 항일투쟁은 여동생 박차정의 활동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해방 후 의열단원이라면 좌익으로 폄하했던 지난 날의 편향적 인식은 이제 바꼈을 뿐만 아니라, 박문희·박문호 형제가 참여했던 북경 레닌주의정치학교와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시절의 의열단은 민족주의적 좌파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이들 학교의 1기생 여러 명도 이미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된 바가 있다.⁴⁾ 따라서 이들 형제의 항일투쟁 사적을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함은 우리들의 책무이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필자가 이 글을 쓰고자 했던 근본적인 의도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박문희·박문호 형제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처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일경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들

4) 의열단원 중에서 부산·경남 출신으로 조선혁명군간부학교 1기생 윤세주(1982년 독립장)·신병원(1995년 애국장)·최장학(1990년 애국장) 등이 이미 추서되었다.

이나, 형 박문희는 1932년 8월 남경에서 김원봉·박차정 부부로 부터 1기생 입교지원자 모집을 부탁 받고 300원의 활동자금을 받아 상해→청도→인천항을 통해서 귀국하였다. 그는 9월 14일 동래에 도착하여 신간회 동래지부와 동래청년운동을 통해서 알게 된 청년 9명을 포섭하여 그 중 5명을 남경으로 보내고는 자신도 다시 남경으로 갔다. 그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입교 수락자 5명을 선발해서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동래청년연맹과 신간회 활동을 통해서 쌓은 개인적인 친분과 명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박문희·박문호 형제가 항일투쟁에 직접 참가했던 1929~1936년까지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이나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의열단의 창단이념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당시 일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들 두 단체를 의열단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1920년부터 1926년까지 7년간 의열단의 무력항일투쟁이 국내외에서 극명한 자취를 남긴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문희의 체포사실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보도에서도 ‘의열단원 박문희’⁵⁾로 호칭하고 있어 그를 의열단원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까지 형 박문희와 동생 박문호의 항일투쟁에 대한 기록은 여동생 ‘박차정 연구’에서 간단히 언급된 것⁶⁾과 막내동생 박문하가 남긴 수필 속에서 간간히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5) 동아일보 1934년 5월 20일자 및 6월 23일자.

6) 강대민, 1996, 「박차정의 생애와 민족해방운동」, 『문화전통논집』 4,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2004, 『여성조선의용군 박차정 의사』, 도서출판 고구려; 이송희, 1996, 「박차정 여사의 삶과 투쟁」, 『지역과 역사』 제1호, 부산경남 역사연구소. 강영심, 2003, 「항일운동가 박차정의 생애와 투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태일, 1997, 「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경남지역문학회.

박문하의 수필 속에서 형들의 항일행적을 기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친동생의 글이라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크게 왜곡되게 된 것이다.⁷⁾

그동안 ‘의열단과 김원봉·박차정 연구’에서 박문하가 항일 투쟁단체 의열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1929년 가을 박문하가 북경에서 안광천·김원봉과 함께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⁸⁾ 필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즉, 박문하의 1929년 3월 북경으로 망명해서 그해 5월 상해로 가서 외가의 가까운 인척인 仁成학교 교장 김두봉⁹⁾을 만

7) 金三根, 1982, 「박차정 여사 편」 『부산출신독립투사집』, 박재혁의사비건립동지회

동래지편찬위원회, 1983, 「만주벌판서 전사한 女항일투사 박차정」 『동래지』

동래와 해운대誌 편찬위원회, 1980, 『동래와 해운대』

부산광역시, 2006. 「박차정」 편 『부산을 빛낸 인물』 2권

8) 김영범, 1997,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한상도, 2006., 『대륙에 남긴 꿈 - 김원봉의 항일역정과 삶』, 역사공간,

9) 이제까지 알려진 白淵 金料奉의 출생연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사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의 연구서로는 경남대학교 심지연 교수가 1993년에 출판한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 김두봉 연구』(인간사랑 출판)가 있으나, 그가 1889년 출생했다는 것 이외 성장과정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다. 김두봉은 1889년 3월 17일(음력 2월 16일) 경남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에서 부친 金敦洪과 모친 金○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동생 이름은 料白, 여동생은 白正. 그는 처 趙鳳元과의 사이에 두딸 興述(후일 중국에서 尙燁으로 개명)과 任述(海燁으로 개명)을 두었다.(국사편찬위원회, 『해외의 독립운동사료』 17권, 「요시찰인명부」 pp.292-293, 「김두봉 항목」) 그런데 이제까지 발간된 기록에서 그의 출생연도를 대부분 1890년으로 착오하고 있으며, 尙燁을 아들로 오인한 경우도 있다. 그녀는 중경에서 민족혁명당계의 소년·소녀단체인 3·1소년단 단장을 하기도 했다.(정정화, 『長江日記』, 학민사, 1998, p.211) 朴文燾의 외할아버지 金世洪이 바로 김두봉의 부친 金敦洪의 친형이니, 박문하의 모친 金孟蓮(1883년생)이 김두봉의 사촌누님이 되는 셈이다. 이런 혈연관계를 착각해서 “김두봉을 김원봉의 외사촌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으나(司馬璐, 『鬪爭十八年』, 홍콩 亞洲出版社, 1962, p.178 ; 심지연, 『앞의 책』 p.66에서 재인용)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의 외5촌 당숙”이 정확하다.

나 그의 소개로 중국어 교사 鄭海理로부터 중국어를 배우는 한편, 북경에 있는 의열단장 김원봉과 단원 朴建雄¹⁰⁾을 소개 받았다. 7월에는 다시 북경으로 되돌아가서 박건웅의 소개로 華北대학 사회학부에서 수학하는 한편, 9월에는 김원봉·박건웅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재건동맹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박문호를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 이끈 장본인은 모친의 사촌동생인 기장출신 白淵 金料奉이었고, 그가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투신할 당시만 해도 의열단은 민족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항일독립운동 단체였다.

한편, 형 박문회는 신간회 활동을 통하여 사회개혁 운동가로 명망을 얻어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다.¹¹⁾ 이러한 점은 박문회가 신간회 중앙본부에서 경성지부의 공격을 받고 있을 당시 그를 옹호했던 회장 金炳魯의 증언으로도 입증

10) 1905년 7월 1일 평북 의주 출생.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4년 상해청년연맹에 가입하고 가명을 김정우로 사용. 1926년 3월 김원봉 등과 함께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교하여 10월에 수료하고, 이때 의열단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9년 12월 북경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중앙위원 겸 북경지부 책임자로 활약했다. 1933년 6월 김원봉과 의견충돌로 의열단을 떠난 후에는 金星淑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 활동 했으며, 해방 직후 1946년 3월 중경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선편으로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 상임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46년 12월 7일 남조선과도입법회의 산업노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용산 을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6.25사변 당시 서울에 있다가 북한당국이 이른바 요인 “모시기작전”으로 납북되었다고 하나, 1951년말 북한에서 ‘공화국 명예연구사’ 칭호를 받았고, 1956년 7월 2일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의원으로 있다가 1958년 12월 미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의 스파이 혐의로 처형당했다고 그의 둘째 딸 朴義蘭(1937년 상해 출생)은 자신의 책에서 밝혔다.(박의란송지영, 『朴建雄, 딸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 아버지』, 엠-에드, 2008, p.220) 1990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 추서.

11) 金璟載, 「長子風の 朴文憲氏」, 월간 『삼천리』, 1932년 8월호 윤효정, 2006, 『신간회 해소논쟁기 중앙본부 주도층의 계급연합적 민족협동전선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7쪽.

된다.¹²⁾ 따라서 그를 사회주의자로 단정한 것은¹³⁾ 박문희에 대한 연구부재에서 나온 착오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순히 그를 김원봉의 처남이자, 해방 후 북한 김일성정권에 참여한 白淵金料奉이 모친과 가까운 인척이라는 사실로 예단한 오류였다.

본고에서는 당시의 신문보도기사·일제의 경찰기밀문서·경찰 심문조서·조선총독부 경무국 작성 기밀문서 및 관련자들의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박문희의 항일활동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들 자료 중에는 1934년 12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작성한 기밀문서 「軍官學校事件ノ真相」이 있어, 그가 추천해서 보낸 1기 입교생 문길환·김영배·이무용·신병원·최장학 5명의 포섭경위와 1933년 6~7월 국내침투 공작과정이 수록되어 있고, 또 1기 졸업생 陸史 李活¹⁴⁾·신병원¹⁵⁾·김공신의 심문조서¹⁶⁾ 등을 분석하면 박문희가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 활동한 사실을 추적할 수가 있다. 다만, 동생 박문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었으므로¹⁷⁾ 본고에서는 형 박문희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부산형무소에서 2년을 복역한 박문희 뿐만 아니라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28살에 순국사한 박문호에게는 아직도 대한민국 독립유공훈장이 추서되지 않았고, 이들 두 형제를 기억해 주는 사

12) 김학준, 1988, 『街人金炳魯評傳』, 민음사, 208-217.쪽

13) 강만길·성대경 편, 1999,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0쪽

14) 1934년 6월 1일자 및 1935년 5월 15일자.

15) 1934년 12월 25일자.

16) 1934년 6월 25일자.

17) 동생 박문희의 자세한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1일 부산항일학생 의거기념사업회 주최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광복63주년기념 전국학술세미나 논문집』 pp.55-93에 수록되어 있는 필자의 논문 「잊혀진 항일투사 朴文昊의 행적과 투쟁」을 참고 바람. 이 논문은 2009년 2월말경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문화전통논집』 제16집에 채수록 예정임.

람도 이제는 거의 없다. 치안유지법으로 단 몇 달을 복역하고 나와도 독립투사로 행세하는 오늘날, 이들 형제의 항일활동은 여동생 박차정 못지않는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저편에 묻혀있다. 이제 우리가 묻혀진 진실을 찾아 이들 형제의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II. 진보적 민족주의자 박문희의 가계(家系)

1. 부친 박용한과 박문희의 형제들

박문희·박문호 형제는 모두 3남 2녀로, 부친 朴容翰(1883~1918년)과 모친 金孟蓮(1883~1970년) 사이에 장남 文燾(1901~1950년 6월 행방불명), 장녀 壽貞(1904~1928년 병사), 차남 文昊(1907~1934년 殉國死), 차녀 次貞(1910~1944년 중경에서 사망), 삼남 文夏(1918~1976년)를 두었다.

그의 가계는 密城大君 杏山公派로, 조부 秋華(또는 寅華 : 1845~1897년)과 조모 동래정씨 仁順(1846~1907년) 사이에서 부친 容翰이 태어나 28대손이 된다. 부친은 기장출신 김해김씨 孟蓮과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고, 尙烈(常烈) 또는 祥昱이라는 이름도 썼다. 1905년 2월 2년제 동래 開楊학교를 졸업하였고, 그와 같이 졸업한 개양학교 동기 중에는 화가 나혜석의 남편이 된 金雨英도 들어있다.

家譜에 의하면 부친 박용한은 개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보성전문학교에 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졸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07년 10월 2일자 『官報』 「敍任 及 辭令」란에 “탁지부 技手 朴祥昱”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¹⁸⁾ 그는 1905년

2월 동래 개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가서 보성전문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대한제국 탁지부에서 측량견습생을 모집하자 지원하여 판임관 9급에 임명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대한제국에서는 1905년 2월 탁지부 내에 司稅局 量地課를 설치하고, 6월에는 일본인 측량기사를 초빙하여 한국인에게 측량 기술을 속성으로 강습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측량기사 후보생을 선발하여 탁지부 기수로 임명했는데, 박용한도 朴祥昱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즉, 1905년 4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는 조선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908년 12월에는 일제의 경제수탈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을 식민지경제로 예속화시키는 작업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탁지부 기수들은 일제의 앞잡이라 하여 일반백성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영도출신 수필가 金素雲(1907~1981년)의 부친 金玉鉉도 탁지부 기수로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1908년 일제의 앞잡이로 오인을 받아 피살된 것을 보더라도 탁지부 측량기사들은 본의 아니게 민중의 오해를 받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 측량기수들은 양복에 일본인들과 함께 측량기기를 들고 다니고 있어 친일분자로 오인을 받기가 쉬웠고, 더구나 조선의 토지를 강제로 수탈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일반백성으로부터 원성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官報』 1909년 1월 25일자에 “임시재산정리국 技手 朴祥昱, 1월 19일자 의원사직”¹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는 탁지부 측량기사생활 16개월만에 사직했음을 알 수가 있다. 고향 동래로 낙향한 부친 박상옥은 수산업에 종사하다가 1918년 1월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는데, 당시 박문회는 4년제 동래사립

18) 『구한국관보』 17권, 973쪽.

19) 『구한국관보』 20권, 105쪽.

고등보통학교 졸업반이었고, 박문호는 동래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이었으며, 장녀 박수정은 부산진 일신여학교에, 차녀 박차정은 동래보통학교 재학중이었다. 부친이 자결하고 나서 2달 후인 3월 13일 삼남 박문하가 유복자로 태어났다.

부친이 일제가 조선에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자 이를 비판하여 자결한 사실은 박문희·박문호·박차정 남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생계문제가 시급해졌다. 박문희는 경성성서학원(현재의 서울신학대학)로 진학하여 성결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박문호는 동래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동래구룩조합(탁주제조조합) 사무원으로 취업했으며, 박차정도 주위의 도움으로 동래일신여학교에서 어렵게 수학했다.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의 박문희·박문호·박차정 삼남매는 일찍부터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아 동래청년연맹·동래청년동맹·동래소년동맹에 가입하는 등 항일정신은 남과 달랐다.

2. 박문희 형제의 항일투쟁 根源

雨荷 朴文夏라면 부산지방에서 본업인 의사보다는 수필가로 널리 알려진 문인이자 여성항일투사 朴次貞의 친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58살이라는 비교적 짧은 생애 속에서 4권의 수필집²⁰⁾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장, 부산문인협회장 등을 역임 했으니 文人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그의 수필은 醫窓隨筆이 많았지만 굴곡 있는 가족사를 언급한 부분도 적지 않다. 1960년 2월 3일자 부산일보에 발표한 수필

20) 『배꼽없는 여인』(1960년, 1971년 재판), 『인생 쌍화탕』(1963년), 『약손』(1965년), 『낙서인생』(1972년).

「첫사랑」²¹⁾, 국제신보 1962년 1월 16일자에 발표한 「부자상봉」, 국제신보 1965년 3월 4일자에 발표한 「나의 첫 직장」²²⁾, 1968년 한글문학 제2호에 발표한 『잃어버린 동화』, 국제신보 1971년 9월 7일자에 발표한 「그 시절의 술맛」과 9월 23일자 「통역정치에 폐단」, 9월 27일자 「옥포 독립당 사건」, 그리고 1966년 동래여고 교우지 『옥샘』에 기고한 「누님 박차정」²³⁾ 등이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잃어버린 童話」에서는 기구한 그의 가족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형제가 모두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속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회상을 아름다운 필치로 엮어내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 3남 1녀 중에서 박차정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장남인 박문희나 차남인 박문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있다. 물론 박차정을 소개하는 책이나 글 속에는²⁴⁾ 두 오빠 박문희·박문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신간회·의열단과 김원봉, 그리고 조선혁명간부학교 관련자료에서는 박문희·박문호 형제의 이름은 자주 발견된다.

박문호의 항일투쟁에 관한 원사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그의 항일투쟁연구가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그가 주로 활동을 했던 무대가 중국 북경·천진·상해였고, 그의 항일투쟁은 의열단과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 및 북경 레닌주의정치학교와 연관되는 지하공작이었기 때문에 자료입수가 용이하지 않다. 문제는 의열단을 제외하고 북경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이나 레닌주의

21) 1960년 평화문화사 발행 제1수필집 『배꼽 없는 女人』에 재수록.

22) 상기 2편은 1965년 태화출판사 발행 제3수필집 『약손』에 재수록.

23) 상기 5편은 1972년 아성출판사 발행 제4수필집 『낙서인생』에 재수록.

24) 강대민, 『앞의 책』, 22-23쪽; 이송희 1996, 「앞의 논문」; 박태일, 1997, 「앞의 논문」.

정치학교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²⁵⁾

이제까지 박문호에 대해서 인용되어 온 자료의 근거출처로는 막내동생 박문하가 쓴 수필 속에서 전하는 것이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적지 않았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즉, 박문하가 1960년 2월 3일자 부산일보에 발표한 「첫사랑」에서²⁶⁾ “내 나이가 차츰 더할수록 왜놈들의 탄압은 날로 심해 도저히 내 고장에서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나는 십칠세 되던 해의 봄²⁷⁾에 어머님을 뒤희고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상해를 거쳐서 남경에 도착한 나는 오랜만에 그리던 형님과 누님을 만나 그곳에서 임정요인들과 같이 지냈다. 이때만 해도 일제의 세력이 차츰 중국에까지 뻗혀들어 그들의 밀정들은 항상 우리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나는 문호 형님과 함께 용무를 띠고 상해로 나왔다가 그곳에서 불행히도 일경에게 체포되어 2년간의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끌리어 왔다. 문호 형님은 일본 나가사키형무소로 끌리어가서 5년형²⁸⁾을 치르는 동안 옥사를 하고 말았다. 조국에 돌아온 나는 의탁할 곳이 없어 머리를 깎고 청도 운문사로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라고 썼고, 또 1965년 3월 4일자 국제신보에 발표한 「나의 첫 직장」에서 “그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중국 남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형과 나는 몇

25) 김영범, 『앞의 책』, pp.277-282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26) 수필 「첫 사랑」은 수필집 『배꼽 없는 여인』, 평화문화사, 1971년(초판 1960년), 143-147쪽에 재수록.

27) 1934년 8월 중순경이 정확하다.

28) 박문호의 첫 피체는 1931년 12월 14일 천진이다. 이때 그는 1년 6개월의 실험선고를 받았고, 1933년 9월 6일에 출옥하여 동래로 돌아왔다. 두 번째 피체는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으로 1933년 10월 초순경 동래에서 다시 체포되어 막내동생 박문하가 남경에 도착했던 1934년 8월말경에 그는 이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일 동안 상해에 나와 있다가 그곳에서 왜경에게 그만 체포되고 말았었다. 형은 일본으로 끌려가서 5년형을 받고 장기형무소에서 복역 중 옥사를 하고, 나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보호송환」이 되어 돌아 와서는 먼 친척집에서 한 달 동안 눈 찻밥을 얻어먹으면서 백방으로 취직자리를 구하여 보았으나 나를 맞아주는 직장이라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²⁹⁾라고 회상했으나, 이 회고담은 대부분 박문하의 착오였다. 그가 모친을 따라 중국 남경으로 간 1934년 8월에 큰형 박문회는 부산형무소에, 작은형 박문호는 서대문형무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모친을 따라 상해를 거쳐 남경으로 갔던 그가 30여년이 지나서 회상한 기억들이라 고의는 아니겠으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회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박문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하게 된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 기억상 혼선이 생긴 연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이 글을 쓸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이 의열단활동이라면 ‘사회주의=공산당’이라고 인식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두 형의 항일투쟁 사적에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박문하가 박문회·박문호 형제의 친동생이라 그의 기술을 의심 없이 인용³⁰⁾하는 데서 생겼다.

1907년 10월 16일 동래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박문호는 형 박문회와는 6살 차이가 난다. 이것은 가운데 1904년에 태어난 장녀 朴壽貞(1904~1928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수정은 부산진

29) 수필 「나의 첫 직장」은 수필집 『약손』, 태화출판사, 1965, 91-93쪽에 재수록.

30) 김규태의 「인간시대」, 국제신보 연재, 2005. ; 최해군의 「부산을 살다 간 예술가 열전, 46회 - 雨荷 朴文夏 선생」, 부산예총, 2005 및 각종 ‘박차정연구’ 논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일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양산 보육원과 산청·옥천 등지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신혼초인 1928년에 병사했다.

동래사립보통학교 과정을 마치고 일찍부터 동래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박문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은 친형 박문희와 경성제일고보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와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기장출신 朴日馨(본명 朴孔杓)이었다.³¹⁾ 1906년 12월 5일생인 박일형은 박문희·박문호 형제와도 먼 인척이었으며, 그는 삼일만세운동 당시 기장을 독립만세사건으로 1919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1930년 6월 5일 불온문서 배포사건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미결 48일) 집행유예 5년형을³²⁾ 받은 바 있어, 부산지방에서는 명망 있는 사회주의성 항일지사였다.³³⁾ 따라서 학생시절 부친의 자결이라는 극한상황을 경험하게 된 박문희·박문호·박차정 3남매는 일찍 항일의식에 몰입하게 된 것은 당연한 행보였다.

3.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 박문희

1919년 2월 4년제 동래사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성서학원으로 진학한 박문희는 1922년에 졸업하고 안성·통영·서울 등지에서 성결교회 전도사로 근무했다. 1924년 6월 23일 대구 신명여학교 출신 규수 李道今과 결혼한 그는 3년만에 전도사생활을 사직하고 북풍회·정우회 등 각종 사회운동단체에 가입하고는 본격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이때 가깝게 지낸 동지로

31) 『朝鮮思想家總觀』, 月刊 『三千里』 附錄, 三千里社, 1933년, 91쪽.

32) 이대수, 2001,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고구려, 73쪽.

33) 강대민, 『앞의 책』, 15쪽

는 農泉 徐廷禧(1877~1950년, 6·25 때 납북)³⁴⁾의 사위로 당시 사회주의 이론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金璟載³⁵⁾가 있다. 1925년 동래로 낙향한 그는 그해 11월 동래청년연맹 창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1926년 1월에는 동래 협과회를 조직하고 서무부 위원으로 선출되어 현대경제조직과 사회과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며 이 단체를 이끌었으며, 정우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³⁶⁾ 신혼초인 박문희가 가정보다는 사회운동에 깊이 몰입해 있는 것을 본 그의 장인 李相濶이 그를 사회운동권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일본유학을 권했다. 그는 신혼부인과 3살박이 딸(英淑, 1925년 7월 5일생)을 경북 달성군 玄風 처가에 맡겨두고 동경으로 갔다.



부산 대중일보 사장 시절의 박문희(1949년, 사진 제공 : 동래고등학교 역사관)

1927년 4월 일본대학 경제학부³⁷⁾에 진학한 그는 1년 반만인

34) 2대, 4~8대 국회의원이자 6대 국회 민주당 원내총무를 역임한 서범석(1902년 생)의 부친, 6·25때 납북.

35) 1901년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 황주양성학교장을 역임하고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화요회, 정우회, 신흥청년동맹 간부로 활약.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서 제출된 「국제정세보고」와 「정우회 창립선언」은 그의 필치에서 나온 글이다. (『조선사상가총관』, 삼천리사, 1933년, p.86)

36) 윤효정, 「앞의 논문」, 54쪽.

37) 일부 기록에서는 일본 명치대학 수학으로 기록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착오이다.

1928년 12월에 귀국하여 신간회에 가입, 1929년 6월 신간회 북대표대회 釜山지역 북대표로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신간회 중앙본부로 진출한 그는 중앙상무집행위원 자격으로 전국 순회강연을 다녔다.³⁸⁾ 민중을 계도하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이었는데, 당시 신간회 회장은 변호사 金炳魯였다.

1929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박문회·안철수 지방순회차 서울 출발”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 그해 12월 광주학생사건의 여파로 신간회 중앙본부가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되어 그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즉, “학생운동에 관련하여 종로경찰서에 피검된 신간회 간부 李周淵³⁹⁾·金振國·朴文燾·韓炳洛⁴⁰⁾ 4명⁴¹⁾이 유치장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도하고⁴²⁾ 있어 박문회가 수감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중앙본부 간부들이 구금되어 단식으로 항의를 표시하자 신간회 회장 김병로의 교섭으로 이들은 석방되었다. 이때 여동생 박차정은 근우회 간부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박문회는 김진국과 함께 다시 전국순회강연을 떠났다. 이때 박문회의 강연제목은 “내외정세와 신간회의 당면임무”, 김진국은 “신간회의 역사적 사명”이었다.⁴³⁾ 신간회의 관서지방 순회강연은 4월 8일 평양, 4월 9일 안

38) 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자,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安喆洙와 同會의 중앙집행위원 朴文燾가 지방순회차 출발하다” 기사 참조.

39) 함남 단천 출신. 서울 중등학교 졸업 후 사회주의에 심취, 신간회 본부 중앙집행위원, 해방 후 북한정권 부수상 역임.

40) 함남 정평 출신으로 1901년생. 정평농민동맹 집행위원으로 신간회에 참여. 1929년 7월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화요계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으로 검거되어 1936년 7월에 만기출소.

41) 이주연·박문화·한병락 3명은 1929년 7월 1일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

42) 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자.

43) 동아일보 1930년 4월 7일자.

주, 4월 10일 진남포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5월에는 경상도 지역 순회강연도 있었다. 그런데 박문회의 평양강연 도중에 임석 경찰의 제지를 받아 강연이 중지되고 해산을 당했던 것을 보면⁴⁴⁾ 그는 늘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박문회가 주창한 것은 신간회의 노선을 ‘이념투쟁보다는 온건화를 통한 민중계몽’이라 경성지부 소속 극좌파 콤그룹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이것이 소위 ‘박문회사건’으로 알려진 ‘신간회 해소’소동의 발단으로,⁴⁵⁾ 신간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카프(KAPF)계 맹렬분자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박문회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으로는 1930년 11월 1일에 발간된 월간지 『별건곤』 제34호에 명사들의 설문 대담 프로⁴⁶⁾ “조선은 어디로 가나?”에서 그는 신간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그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新幹運動⁴⁷⁾

사람에 따라서 각각 자기 견해가 같지 않을 줄 압니다. 나는 내 자신이 사회운동에 처하여 있는 이 만치 실제 운동자로서 본 조선운동의 방향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1927년 조선 사회운동은 무산계급이 그 자체의 내적발전에 의하여

44) 중의일보 1930년 4월 11일자.

45) 이성규, 2006, 『항일 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 (하), 지식산업사, 136-143쪽.

46) 이 특집 設問에 참가한 각계 명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언론계 薛義植, 정치방면 宋鎮禹, 금융계 XX銀行 專務, 사회활동 KH生(원산), 사회운동 金璟載, 종교계 鄭應瑋, 노동운동 鄭雲永, 종교계 韓龍雲, 교육계 朴熙道, 영화계 金幽影, 文壇 廉想涉, 교육계 崔斗善, 상업계 金潤秀, 新幹運動 朴文燾, 공업계 朴天秉, 劇壇 洪海星 등 총 16명.

47) 본문의 철자법과 띄어쓰기는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 가필했음.

세계 금융자본의 현실적 운동에 대응하여 그 자체의 내부적 구성과정을 과정(오식으로 추정: 필자)하는 동시에 그의 동맹자적 사회적 존재, 중간층의 계급적 형성과정을 자기 계급형성과정에까지 양기(揚棄)시키기 위하여 민족적 정치투쟁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아직까지 막연한 관념적 편파적 추상적 일반적 영역에서 방황하여 전위적 기본적인 유치한 계단을 미면(未免)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정치투쟁에 있어서 진정한 정치적 방침을 실현하고 일반적 정치적 활동을 일상의 정치적 활동에까지 연결하기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몰락의 최후과정을 강렬하게 밟아가는 제국주의 열강의 그 경제적 대립투쟁은 침예화 하여 가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전쟁의 위기는 급박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군은 자국 내의 무산계급과 식민지 민족을 한없이 xx xx⁴⁸⁾함으로써만 그의 殘命을 보존할 수 있나니, 조선은 세계금융자본의 급격한 공세에 의하여 날마다 도시에는 失業軍, 농촌에는 流離民이 홍수와 같이 격증하여 경제적으로 파멸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극히 불리한 조건 하에서 일반민중은 미래사회나 정치적 이상보다 공포와 절망 중에 쌓여서 飢餓를 면하기 위하여 滿腹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운동으로 하여금 불가피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관념영역에서 과학적 실천적 구체적으로 현실투쟁을 힘 있게 전개 시키려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⁴⁹⁾

상기 기고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문희의 신념은 신간회운동이 이념적 투쟁보다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선의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일반민중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자치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적 기조는 진보적 민족주의로 보아야 할 것이나, KAFF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파들이 중앙본부의 온건화를 빌미로 자신을 공격하

48) 사상적으로 민감한 표현이라 편집자가 임의로 “xx xx”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49) 朴文熹, 「新幹運動 - 조선은 어디로 가나?」, 월간 『別乾坤』 제34호, 1930년 11월 1일 발행.

자 그는 1930년 12월 23일 신간회를 탈퇴했다. 남과 다투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품이 신간회 해소소동⁵⁰⁾으로 희생양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박문회는 신간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글을 남겼다. 앞에서 인용한 기고문 「新幹運動 - 조선은 어디로 가나?」 외에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1) 「신간회 해소문제 비판 - 전국적 해소와 시기」(월간 『삼천리』, 1931년 1월호), (2) 「사회단체에 보내는 독촉장, 재조직기에 임한 노·농총동맹」(월간 『해성』, 1931년 5월호), (3) 「조선운동의 신단계」(월간 『삼천리』, 1932년 4월호), 등이 전해오고 있다.

그가 1925년 전도사생활을 접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동지 金璟載가 월간 『삼천리』 지 1932년 8월호에 기고한 「쟁쟁한 당대 논객의 풍모 - 長子風의 박문회 씨」를 보면, 박문회를 조선 사회개혁을 위한 민족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주의자로 보는 시각은⁵¹⁾ 적절치 못하며, 그의 사상과 이념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박문회는 동래누룩조합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래소년동맹과 동래청년동맹에 가입하여 朴日馨·朴永鐘 등 민족의식이 투철한 선배를 만나 사회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고,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식민지 청년으로 현실을 자각하게 된 그는 넓은 세상을 동경한 나머지 동래누룩조합 공금 1,500원을 가지고 1929년 3월 중순경 북경으로 도망쳤다.⁵²⁾

50) 이균영, 1996,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381-397쪽 ; 이성규, 『앞의 책』, 136-143쪽.

50) 강만길·성대경 편, 『앞의 책』, 190쪽.

52) 경성 서대문경찰서 작성, 1934년 3월 18일자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자 朴文昊 「심문조서(제1회)」.

4. 박문희 형제가 주도한 여동생 박차정의 국내탈출작전

부산·경남지방의 대표적인 여류항일투사 박차정에 대해서는 이미 略傳과 小論⁵³⁾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소개 되어 있는 편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그녀의 국내탈출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나와 작은 오빠 박문호가 보낸 밀사를 따라 인천에서 상해로 팔려가는 여인들 속에 묻혀 탈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근거는 막내동생 박문하가 쓴 수필 「첫사랑」에서 “당시 신간회의 중앙위원이던 문희(文熹) 형님은 항일군을 모집하여 남경으로 떠나 버리고, 이십대의 처녀로서 근우회(槿友會)의 선전부장이던 차정(次貞) 누님은 광주학생사건에 연좌되어 서대문형무소 병감(病監)에서 복역 중이던 것을 북경에 있는 문호(文昊) 형님이 밀파한 동지의 힘으로 탈옥해 상해에서 약산(若山)과 결혼을 해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⁵⁴⁾라고 기술한 데서 근거하고 있으며, 또 1966년 동래여고 교우지 『옥샘』 20호에 기고한 글 「누님 박차정」에서도 “(전략) 누님은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수였던 홍성하(洪性夏)씨 댁에 숨어서 망명 준비를 했다. 그리고 상해 인육시장으로 팔려가는 여인들 속에 섞여서 인천에서 배를 탔고, 중국으로 망명하는데 성공하였다.”⁵⁵⁾라고 기술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그 이유는 박차정의 국내탈출이 두 오빠 박문희·박문호의 치밀하게 기획된 탈출작전이었음이 일경의 기밀문서⁵⁶⁾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밀문서

53) 宋連玉, 2005, 「性差別と植民地主義の克服をめざして」, 『前夜』 3호, 影書房, 東京, 189-195쪽.

54) 1960년 2월 3일자 부산일보에 처음 발표, 1960년 평화문화사에서 발행한 제1수필집 『배꼽없는 女人』, 144쪽에 재수록.

55) 1972년 아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제4수필집 『낙서인생』, 272-273쪽에 재수록.

를 통해서 그녀의 국내탈출 실상을 재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학생사건의 여파로 1929년 12월 근우회 상무집행위원이자 조사연구부장인 박차정은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일경의 극심한 취조를 받았다.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박차정은 경찰 고문으로 인해서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큰오빠 박문희는 신간회 선배동지인 金恒圭⁵⁷⁾에게 부탁해서 병보석을 신청하여 그녀는 1930년 2월 15일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주거지는 큰오빠 박문희가 기거하고 있는 서울 통의동 120번지 소재 德興여관으로 한정되었고, 보호자는 박문희 자신이었다.

몇일 후 전북 고창출신으로 상해유학생인 鄭모(21세쯤)가 내방하여 박차정에게 작은 오빠 박문호의 傳言을 전했다. 또 이날 대구출신 鄭모(23세쯤)⁵⁸⁾가 박차정을 찾아왔고, 저녁에 다시 내

56) 필자가 찾은 일경의 기밀문서는 다음과 같다.

- (1) 경성 서대문경찰서장 작성, 京西高秘 제853호, 「保安法違反 被疑者 手配ニ關スル件」, 1930년 2월 24일자.
 - (2) 경성 서대문경찰서장 작성, 京西高秘 제1199호, 「保安法違反 被疑者 手配ノ件」, 1930년 2월 26일자.
 - (3) 경성 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도경부보 黑沼力彌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정 笠井健太郎에게 보낸 「保安法違反 被疑者 朴次貞 所在不明ノ件」, 1930년 2월 28일자.
 - (4) 경성 서대문경찰서 작성, 京西高秘 제8613호, 「朝鮮共產黨再建同盟事件發覺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16일자.
- 56) 1880년 서울 昭格洞 출생. 경성법학전문학교의 前身인 專修學校를 졸업한 그는 1930년 2월 당시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원로급 위원이었다.(『朝鮮思想家總觀』, 삼천리사, 1933, 15쪽)
- 58) 1934년 3월 16일자 서대문경찰서에서 작성한 李康明의 「심문조서(제1회)」에 의하면 대구출신으로 의열단 비밀단원인 鄭俊碩(1906년 12월 12일생)을 지칭한다. 정준석은 박차정과 함께 북경으로 갔다가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1933년 10월 대구에서 체포 되었다.(경성 서대문경찰서 작성, 京西高秘 제8613호, 「朝鮮共產黨再建同盟事件發覺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16일자, 11쪽) 그는 서대문경찰서 심문과정에서 “박차정과 는 연인관계였으나 그녀가 1931년 3월 단

방했을 때 두 사람은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2월 22일 저녁 8시경 박차정은 혼자 덕홍여관을 빠져 나왔다. 그녀는 대구출신 鄭모를 따라 서울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바로 중국행 정기선을 탔다. 다음 날인 2월 23일 아침 큰오빠 박문회는 여동생이 가출해서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대문경찰서는 즉각 덕홍여관으로 달려와서 박차정이 언제 가출 했는지를 조사했다. 박문회는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동생이 없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여관 종업원들의 진술도 거의 같았다. 서대문경찰서의 급보를 받은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즉각 전국에 긴급전화 수배령을 내렸다. 이어서 2월 24일에는 경기도경찰부장·경성지방법원 檢事正(검사장)·서울 시내 각 경찰서장과 동대경찰서장 앞으로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자 박차정을 수배하라”는 긴급 기밀문서를 발송하면서 “오빠 박문호가 상해 北望志路에 거주하고 있고, 박차정도 항상 중국으로 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키는 4척 9촌, 얼굴은 둥글며, 검은 옷을 입었고, 검은 가죽구두를 신었다”고 인상착의를 알렸다. 2월 26일에는 경기도지사 명의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경시총감·경성지방법원 검사정·각 도지사·상해 파견원·동경 출장원 및 관하 각 경찰서장에게 기밀문서 제1199호를 보내 박차정의 국내탈출을 극력 저지하고 검거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2월 28일 서대문경찰서 道警部補 黑沼力彌가 경성지방법원 검

장 김원봉과 혼인하게 되자 失意하여 귀국했다”고 진술하여 석방되었다(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9년(1934년) 12月 作成,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p.80)고 했으나, 사실여부는 미상이다.

사국 검사정 笠井健太郎에게 보고한 “보호법위반 피의자 박차정 소재불명의 건”에서는 박문호가 밀사를 보내 탈출자금을 전하면서 중국으로 망명할 것을 권유했음이 명백하다⁵⁹⁾고 보고했다.

이 기밀문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차정의 탈출작전은 박문희·박문호 형제의 치밀한 사전준비 아래에서 기획된 것임이 분명하다. 박문희는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여동생 박차정을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인 선배동지 金恒圭에게 부탁해서 2월 15일 병보석으로 출감시켰다. 이때 박문호가 보낸 밀사가 탈출자금을 전하자 박차정도 국내탈출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국내탈출에는 큰오빠 박문희와 출감보증인 김항규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오게 되니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큰오빠 박문희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한 2월 22일 저녁 8시경 박차정은 통의동 덕흥여관을 빠져나와 박문호의 밀사 鄭俊碩을 따라 서울역에서 인천으로 가 중국행 정기선을 탔던 것이다. 여동생 박차정이 인천항을 떠나 중국 땅에 도착했을 시간인 2월 23일 아침에야 박문희는 서대문경찰서에 그녀의 가출신고를 했다. 출감보증인 김항규와 신변보호자인 자신에 대한 일경의 문책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2월 23일 아침 신고를 접수한 서대문경찰서는 전국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박차정의 검거를 의뢰했고, 2월 24일과 26일에도 다시 긴급수배령을 내렸으나 2월 28일 현재까지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박문하의 수필 「누님 박차정」에서 “상해에서 박문호가 보낸

59) 경성 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도경부보 黑沼力彌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정 笠井健太郎에게 보낸 「保安法違反 被疑者 朴次貞 所在不明ノ件」, 1930년 2월 28일자.(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3권, 「항일만세 및 배일전단 배포사건 심문조서 및 공판조서」, 1997)

밀사를 따라 동래에서 서울로 올라와 송석하 집에 숨어 있으면서 탈출준비를 하였다”라고 했고, “서울로 올라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망명한 것”⁶⁰⁾으로, 또 “상해로 팔려가는 여인들 뜰에 끼여 망명한 것”으로 기술하기도 했으나, 일경의 기밀문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의동 덕흥여관에서 큰오빠 박문회의 가료를 받고 있으면서 탈출준비를 하다가 2월 22일 저녁 8시경 박문호가 보낸 밀사를 따라 서울역에서 야간행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⁶¹⁾ 바로 중국행 정기선을 타고 탈출했고, 그녀가 인천항을 떠나 중국땅에 도착했을 다음 날 아침 시간에 큰오빠 박문회는 그녀의 가출을 신고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 송석하 집에서 은신하면서 탈출준비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그녀가 행방을 감춘 사실도 보호자인 큰오빠 박문회로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출감보증인인 신간회 선배동지 金恒圭에게도 크게 위해가 되는 일이라 그녀가 ‘인천항을 떠나 중국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시간 이후 자진신고’라는 기발한 방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경의 2월 23일자 “박차정 체포를 위한 긴급 전화통지문”, 2월 24일·2월 26일자 “박차정의 긴급체포령”이 내렸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 시내에서의 은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녀의 국내탈출작전은 작은오빠 박문호가 기획하고, 큰오빠 박문회가 지휘한 탈출로 그녀는 1930년 2월 22일 밤 인천항을 떠났고, 이것이 그녀의 고국과 마지막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인천항을 떠난 박차정은 어디로 갔을까? 일경의 기밀

60) 이송희, 「앞의 논문」.

61) 당시 경인선 열차시간은 밤 11시30분까지 매 시간 있었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었다.

문서에는 박문호가 상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1930년 2월 당시 박문호는 북경 華北대학 사회학부에서 수학하면서 조선공산당재건동맹 북평(현재의 북경)지부 선전부 책임자로 있었으니,⁶²⁾ 그녀의 목적지는 북경이 분명하다. 그러니 인천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 아침 도착할 수 있는 중국 靑島나 天津으로 가는 정기선을 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목적지 북경과 가깝고 상해행보다 일경의 선상검색이 느슨하기 때문으로, 이 점이 그녀의 국내탈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5월 重慶에서 김원봉 박차정 부부와 두 反戰 同盟 일본인 좌측은 在華日本人反戰同盟의 리더 아오야마 가쓰오(靑山和夫), 우측은 가지 와다루(鹿地亘)(사진제공 : 東京靑山學院大學 經營學部 宋連玉 교수)

Ⅲ.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간부학교로 잘 알려진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에 대한 日帝의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은 일제와 조선총독부가 의열단원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열단의 공약10조와 강령뿐만 아니라 투쟁목표인 ‘5파괴·7可殺’

62) 경성 서대문경찰서 작성, 1934년 3월 18일자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자 박문호 「심문조서(제1회)」.

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라 일제는 의열단을 다른 독립운동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크게 전을했다. 그러나 1920년부터 1926년말까지 7년간 의열단원들이 국외내에서 벌린 폭파·파괴·암살사건은 2천만 조선민중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⁶³⁾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의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김원봉을 도와 개교작업에 직접 참여했고, 국민당정부와 조선혁명간부학교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던 중국인 干國勳의 「조선 의열단원의 군사교육(1932~1936) -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의 斷面史」⁶⁴⁾와 光復會長을 역임한 2기생 출신 金勝坤(입교시 가명은 黃民)의 「조선의열단의 창립과 투쟁」⁶⁵⁾이라는 항일투쟁 회고담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33년 4월 1기생으로 졸업한 후 국내로 돌아와 지하활동을 하다가 검거되거나(이육사·문길환·김영배·이무영·노석성·안병철·윤익균), 상해에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에 검거된 졸업생들(1기생 신병원·김공신, 2기생 김방우, 3기생 김순곤) 및 교관 李哲鎬와 그의 부인 崔福同의 심문조서⁶⁶⁾, 그리고 1934년 12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작성한 『軍官學校ノ真相』⁶⁷⁾이라는 기밀문서가 남아있다. 또 조선혁명간부학교와 그 졸업생에 대한 연구서⁶⁸⁾나 연구

63) 金在勝, 2008, 「크리스찬 의열단 비밀단원 高仁德 烈士」, 『부·경교회사연구』 제13호, 부산·경남기독교역사연구회, 9쪽.

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2, 『軍史』 제5호, 138-141쪽.

65) 『앞의 책』, 117-137쪽.

66) 군사편찬위원회, 199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의열단투쟁 I-IV」 28-31권.

67) 韓洪九·李在華 편,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제3권, 京沅文化社, 1988년에 수록.

68) 연구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상도, 1994,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제5장의 3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운영」, 문학과지성사, 255-296쪽.

논문도 많아⁶⁹⁾, 그 실체는 거의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의열단의 공식명칭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인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의열단간부학교 또는 의열단군관학교로 부르기도 한다. 후일 조선민족혁명당을 형성한 중요세력의 하나인 의열단은 테러활동 중심의 독립운동단체로, 단장 김원봉은 1931년 9월부터 레닌주의정치학교 3기생을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부족과 ‘만주사변’이 발발함으로써 중단하고 남경으로 가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⁷⁰⁾

1931년 일본제국주의의 만주사변 도발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을 고양 시켰다. 이어서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의거’영향으로 중국 국민당정부는 조선독립운동단체와 조선인들의 항일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하여 민족운동단체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길

_____, 2006, 『대륙에 남긴 꿈 - 김원봉의 항일역정과 삶』,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운영」, 역사공간, 71-84쪽,

김영범, 1997,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제3부 제6장 제2절 「조선혁명간부학교의 운영과 청년투사 양성」, 창작과비평사, 299-316쪽.

한시준, 1997, 『한국광복군연구』, 「2. 군사간부의 양성 (3) 조선혁명간부학교」, 일조각, 7-32쪽.

69) 연구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영범, 「1930년대 의열단의 항일청년투사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권, 1989.

한상도, 1989, 「김원봉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운영(1932-35)과 그 입교생」, 『한국학보』 제57집,

金喜坤, 1994, 「李陸史와 義烈團」 『安東死學』 제1집,

_____, 2004, 「이육사의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70) 한홍구이재화 편, 『앞의 책』, 141.쪽

수 있었던 단체는 이미 레닌주의정치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원봉의 의열단이었다.⁷¹⁾

1932년 5월 중국 국민당정부에 ‘중한합작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제침략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의한 의열단의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 동기와 삼민주의력행사(三民主義力行社), 즉 藍依社의 후원으로 매달 3,000원의 자금을 받아 겉으로는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로 이름을 붙인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목적은 첫째가 조선의 완전독립이고, 둘째가 만주국의 탈환이었다.

1932년 10월 20일부터 1933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남경 교외 탕산(湯山)의 선사묘(善祠廟)에서 교육받은 1기생은 박문희가 추천한 5명을 포함하여 26명이었다. 이어서 1933년 9월 16일부터 1934년 4월 20일까지 7개월간 수학한 2기생은 55명이었으며, 이들은 남경 교외에 있는 강령진(江寧鎭)에서 교육을 받았다. 3기생은 1935년 4월 1일에 입교하여 같은 해 9월 30일에 졸업했는데, 입학할 때는 44명이었으나 36명이 졸업했고, 이들은 남경 성내 화로강(花露岡)에서 교육을 받았다.⁷²⁾ 이렇게 매기마다 교육훈련 장소가 바뀌게 된 것은 일제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 비밀히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할 뜻을 품고 중국대륙이나 만주지방으로 가 있던 조선청년·국내에서 학생운동에 참가한 후 망명한 청년·국내에서 노동조합운동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등이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1기생의 경우 ‘청포도’시인 이육사는 1932년 만주 장춘에 와 있다가 학생모집에 나서고 있던 밀양출신 의열단원 윤세

71) 강만길, 『앞의 책』, 257-258쪽

72)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30-31쪽.

주의 권유를 받아 입교했고, 졸업 후 2기생 모집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조선일보 기자가 되어 지하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⁷³⁾

1기생 26명 중에서 박문회가 입교시킨 5명을 제외하고 교관 이명환(본명 이철호)의 부인 최복동이 김세일(본명 김영재, 평북 용천 출신), 진암(본명 김성제), 왕해득(본명 김공신), 조열(본명 신세철) 등 4명을, 윤세주가 이육사(본명 이원록, 이명 이활)⁷⁴⁾, 왕진명(본명 노석성), 한석평(본명 박준빈) 등 3명을, 나머지 14명은 김원봉, 박건웅, 이영준, 한일래 등이 모은 입교생들이었다.

출신도로 보면 경남이 6명(윤세주, 문길환, 이무영, 김영배, 신병원, 최장학), 경북이 3명(이육사, 안병환, 김대육), 충남 2명(신세철, 노철용), 서울 2명(김성제, 윤익균), 경기도 1명(김공신), 평남 2명(장수정, 이화순), 강원도 2명(지태선, 황육수), 평북 8명(이원, 김영재, 노석성, 김수길, 김세옥, 박준빈, 유복산, 이창하)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6명과 평북 8명으로 가장 많다. 경남이 6명인 것은 박문회가 보낸 5명 이외에 김원봉의 측근인 윤세주가 1기생으로 입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의열단 창단단원으로 1920년 의열단 제1차 공작에 참가하여 국내로 들어 왔다가 체포되어 7년형을 살고 나와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여 김원봉을 찾아온 것이다. 반면에 평북이 8명이나 되는 것은 압록강을 건너 탈출하기가 용이한 서북지방 청년들이 만주나 북경으로 갔다가 의열단원들에게 포섭되어 입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동기생이지만 6개월의 교육훈련과정에서 일과 후에 지역별로 어울리며 지내다 보니 학내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교관 노을용이 이육사와 언쟁이 벌어져

73) 한홍구·이재화 편, 『앞의 책』, 249-256쪽

74) 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널리 알려진 필명 ‘李陸史’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그가 구타를 당하자 경남출신 5명이 이육사 측에 가세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싸움의 발단은 이렇다.

1933년 2월 추운 어느 눈이 쌓인 날 밤이었다. 이육사와 胡平(본명 윤익균)은 초병 당번이 되어 걸어가면서 호평이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 소학교 졸업식에서 불렀던 「반딧불」이라는 동요였다. 이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교관 노을용이 당직을 하다가 곧바로 나와서 일본제국주의를 예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왜 일본말로 노래를 부르느냐”고 호평을 크게 꾸짖었다. 평소 학내 분위기에 불만이 있던 이육사가 “노래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고 반박했더니 노을용은 이육사를 교무실로 오라 했다. 교무실로 불려간 이육사는 “일본말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쁘다면 제국주의 국가의 노래나 말은 다 나쁜 것이 아닌가? 교관들은 왜 영국 제국주의 말인 영어를 입에 올리는가? 중국어라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지자 노을용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면서 방안에 비치해 있던 소형 빼치카를 잡아 그에게 던졌다. 소란이 일어나자 교관 申岳과 교장 김원봉이 나와 말리고 중재해서 소란은 진정되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로 1기생 26명 중에서 이육사를 옹호한 학생은 동래출신 호영(문길환), 진가명(최장학), 유호(신병원), 왕권(김영배), 이남해(이무용) 등⁷⁵⁾ 모두 박문회가 입교시킨 학생들이었다.

교관 노을용은 평북출신으로 당시 25세였고, 학생 이육사는 경북 안동출신으로 29세였다. 이미 세 차례나 국내에서 옥고를 겪었고, 일본·만주·북경·천진·상해 등지를 周遊한 바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거친 이육사가 논리적으로 윤익균을 두둔하자 노을용은 교관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

75)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원록 심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권, 의열단투쟁 IV, .191-192쪽.

고 폭력을 썼던 것이다. 이 단순한 학내 폭력사건으로 우리는 학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기생이었지만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배경은 아마도 연령·학력·출신성분이 잡다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학교의 특성상 보안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學員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1933년 4월 20일 졸업 후에도 이육사는 동래 출신자들과 행동을 같이 했었다.⁷⁶⁾

이육사를 천진에서 의열단원 김시현과 함께 남경으로 데리고 온 것은 김원봉의 측근 윤세주였지만, 그는 1기생 26명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입교생이었다. 그의 투쟁경력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아 김원봉을 비롯하여 교관진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입교 후 얼마 되지 않아 김원봉과 이육사가 남경 玄武湖가 있는 五洲公園에서 뱃놀이를 함께 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⁷⁷⁾ 물론 이육사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겠지만 김원봉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며, 이는 동기생으로 함께 교육훈련을 받고 있던 윤세주의 권유가 작용해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남경 도착 후 윤세주는 이육사에게 1기생으로 수학하기 보다는 정치학 교관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며 그의 인품과 학식을 높이 평가했다.⁷⁸⁾ 이육사도 윤세주에 대해서는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귀국 후 조선혁명간부학교사건으로 옥고를 겪고 나와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하면서 쓴 수필 「戀印記」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S는 石正(윤세주의 아

76) 『앞의 책』 「이원록 심문조서」, 193쪽.

77) 『앞의 책』 「이원록 심문조서」, 187쪽.

78) 『앞의 책』 「이원록 심문조서」, 190쪽.

호)의 英文 頭文字를 의미한다.

“(前略) 그 뒤 나는 상해를 떠나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언제 다시 만날런지도 모르는 길이라 그 곳의 몇몇 문우들과 특별히 친한 관계에 있는 몇 사람이 모여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같이하게 되었는데, 그 중 S에게는 나로부터 무엇이나 기념품을 주고 와야 할 처지였다. 금품을 준다 해도 받지도 않으려니와 진정을 고백하면 그 때 나에게 금품의 여유란 별로 없었고, 꼭 목숨 이외에 사랑하는 물품이라야만 예외에 어그러지지 않을 경우이라,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귀여운 비취인 한 면에다 ‘贈 S, 1933. 6. 10.’⁷⁹⁾ 陸史’라고 새겨서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하루를 기념하고 이 땅으로 돌아왔다.(中略)

나는 상해에서 S에게 주고 온 비취인을 S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해보는 것이다. 지금 S가 어디 있는지 십년이 가깝도록 소식조차 없건마는, 그래도 S는 그 나의 귀여운 인을 제 몸에 간직하고 천대산(天臺山) 한 모퉁이를 돌아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강으로 강으로 흘러가고만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나는 오늘밤도 이불 속에서 모시(毛詩) 7월장이나 한 편 외워 보리라. 나의 비취인과 S의 무강(無疆)을 빌면서.”⁸⁰⁾

이육사는 1933년 7월 귀국 후 서울과 안동에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박문회 일행 4명이 먼저 부산에서 체포됨으로 1934년 5월 25일 그도 일경에게 체포되어 7개월을 고생하다가 출옥하여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했었다. 이후 1944년 1월 16일 북경감옥에서 옥사하기까지 그는 詩作뿐만 아니라 많은 수필도 남겼으나⁸¹⁾ 자신의 투쟁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많은 옥

79) 原文에는 ‘1933. 9. 10.’로 기록되어 있으나, 陸史가 윤세주로부터 여비를 받아 文吉煥과 함께 상해를 떠난 것이 1933년 7월 15일이니(『이환 심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0권, 157쪽), 9월은 6월의 오자가 분명하다.

80) 雜誌『朝光』, 1941년 1월호에 발표.

81) 李陸史의 작품연보는 외솔회 발행, 『나라사랑』 제16집, 1974, 95-97쪽. 참조.

고를 겪었고, 또 의열단이라는 항일비밀결사 조직원으로 당연한 일이겠지만, 石正 尹世胄에 대한 연민의 정은 이 「戀印記」에서 엿볼 수가 있어 흥미롭다. 윤세주는 1938년 10월 10일 漢口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될 때도 간부로 활동하다가 1941년 화북으로 들어갔다. 1942년 12월 12일 태항산에서 일본군 정규군과 교전하다가 전사했으며,⁸²⁾ 이육사는 1944년 1월 16일 북경감옥에서 옥사 했으니, 두 사람은 1933년 6월 상해에서 헤어진 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순국한 것이다.

박문회와 이육사의 관계도 흥미로운 일이다. 박문회가 입교시킨 5명이 학내에서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육사를 옹호했던 일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박문회가 신간회 중앙상무위원으로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간회 안동지부에 관여했던 이육사도 알고 있었다. 더구나 두 사람은 당시 국제정세에도 밝은 인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였다. 또 박문회와 윤세주도 신간회 활동을 통해서 이미 그 존재는 알고 있었다. 즉, 박문회가 신간회 동래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윤세주도 밀양지부에 참여하여 서로 만나적은 없었으나 이름 석자는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1932년 10월 세 사람이 남경에서 처음 대면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1기 졸업생의 국내밀파

1기생 졸업식은 1933년 4월 20일이며, 이 날 저녁 졸업생의 축하 연극공연이 있었다. 3편의 소인극이 공연 되었는데, 첫 번째가 이육사 작 조선혁명극 「지하실」로, 배역으로는 방송인역에 호평, 육사와 이남해는 방송국 서기역, 장수정이 농민역으로

82) 김승일, 2001, 『조선의용군 石正 尹世胄 열사』, 고구려, 384.쪽.

출연했다. 작품의 줄거리는 “경성 어느 공장의 지하실 어두운 방에서 노동자 일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모월 모일 우리 조선혁명이 성공하다」라는 보도가 있고, 계속하여 지금 용산의 모 공장을 점령하였다는가, 평양의 모 공장을 점령하였다는가, 부산의 모 공장을 점령하였다는가 하는 방송을 해오고, 마침내 공산제도가 실현되어 토지는 국유로 되어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식당·일터·주거 등이 노동자들에게 각각 지정되어 완전한 노동자·농민이 지배하는 사회가 실현 되었으므로 농민·노동자는 크게 기뻐하며 「조선혁명 성공만세」를 고창하면 폐막하였다”⁸³⁾라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연극은 「30節병원」으로 胡平(문길환)作이다. 배역으로는 의사역에 호평, 약제사역에 김공신, 여환자역에 서가중(본명 안병철), 병원집 주인역에 진양성(본명 김수길)이 출연했다. 줄거리는 “30節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는 의사와 약제사가 있고, 그곳에 한 임신부가 와서 3년 전에 임신했으나 아직 출산을 하지 못하였으니 진찰을 해달라고 했다. 의사는 그녀를 진찰하고 약제사에게 약을 주라고 했는데, 그 약은 전부 독약·극약만으로 조제하여, 옆방에서 복용시키라고 해서 옆방에서 죽이고 있는데, 병원의 집주인이 집세를 독촉하러 와서 또 엄중히 꾸짖음을 했다. 의사는 이 사람도 돈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옆방으로 몰아넣고, 싫다는 것을 억지로 아편과 가성소다·호르마린 등의 극약을 먹여 죽이고 만다”⁸⁴⁾라는 내용으로 자본주의 멸망을 의미하는 연극이었다.

세 번째 연극은 「손수레」로 작자는 전해오지 않으나, 배역

83) 1935년 4월 26일자 「김공신 심문조서(2회)」,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권, 「의열투쟁 IV」, 149쪽.

84) 『위와 책』, 149-150쪽

으로는 손수레꾼역에 윤세주, 학생역에 장수정, 대학교수역에 이육사, 목사역에 유복산, 순사역에 최성장(노철용 : 교관 노을용의 동생), 노동자역에 진양선이 맡았다. 줄거리는 “언덕길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생이 오니 수레를 좀 밀어 달라고 부탁했다. 학생은 건방지다고 하면서 밀어주지 않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순사가 지나가다가 손수레꾼에게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빨리 가라고 했다. 그 뒤에 대학교수가 지나가다가 수학의 원리에 비추어 실은 짐이 너무 많다고 짐을 좀 내리라고 하고는 그냥 지나갔다. 다음으로 목사가 와서 하나님은 언덕을 올라가라고 해주었다고 하면서 인부와 함께 두 사람이 기도를 했으나 손수레는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에 동료인 노동자가 와서 밀어주어 언덕을 올라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밀어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밀어주지 않았으므로 두 시간이나 걸렸는데, 그대가 와서는 곧 밀어주어 무난히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었다. 역시 우리들 노동자는 노동자 동지끼리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⁸⁵⁾는 요지인데,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한 풍자극의 성격을 띠고 있다.

6개월간 교육훈련 후 1기 졸업생들의 거취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① 공작지 파견 19명(*표는 체포된 졸업자)

가. 상해 및 인근지역 파견 6명 :

*김공신, 김천만(강소성 무석), *신병원, 신세철, 장수정, 정일명

나. 화북지역 특파 2명 :

노철용, 박준빈

다. 만주지역 특파 3명 :

85) 『위와 책』, 150쪽

김수길(봉천), 유복산(신경), 이화순(봉천)

라. 국내 특파 8명 :

*김영배, *문길환, *이무용, *이육사, 노석성, *안병철,
*윤익균, 이창하

② 학교장류 7명

가. 김세일 : 2~3기 교관을 거쳐 성자분교 수료 후, 민족혁명당 광동지부 요원으로 파견.

나. 양민산 : 2~3기 교관, 성자분교 수료 후 남경으로 귀환하여 김원봉의 비서가 됨.

다. 윤세주 : 2~3기 교관. 이후 김원봉의 최측근으로 위치를 확고히 함.

라. 이상지 : 2~3기 교관.

마. 김세옥 : 사서 겸 견습사관.

바. 지태선 : 3기 특무장을 역임하고, 민족혁명당 특무부원으로 활동.

사. 진가명(최장학) : 교내에서 인쇄담당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1935~1937년에 광동군관학교에서 수학한 후 중산대학 법학부로 진학했다. 그는 교관 권준의 딸과 연애해서 사위가 되었고, 권준이 김원봉과 생활비 지급문제로 결별하자 그를 따라 의열단을 떠났다.

졸업식 2~3일전 이육사는 교장 김원봉에게 국내로 돌아가 공작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원봉은 “그대와 같은人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유감이니 북경 부근 熱河 방면에라도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중국 국민당 憑國章軍에 입대하는 것이 어떨까?”⁸⁶⁾하며 귀국을 말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졸업 후에도 계속 귀국을 요청하니,

86) 『앞의 책』 「이원록 심문조서」, 192-193쪽.

그러면 남경 박문회의 집으로 가서 待命하라고 했다.

남경 박문회의 집은 중국인 부호의 별장 胡家花園이었다. 얼마 있으니 동래출신 동기생 왕권(김영배), 이남해(이무용), 호영(문길환), 신병원(유호), 진가명(최장학)이 왔다. 그곳에서 이육사는 5월 5일까지 유숙하면서 박문회와 조선의 장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 김원봉도 3~4차례 찾아왔고, 박문회의 조언도 받아들여 이육사의 귀국은 결정되었다. 5월 6일 김원봉이 여비로 1인당 30원씩 주면서 귀국을 허락하니, 일행은 상해로 나와서 민신의원으로 갔다. 원장은 의열단원 한일래의 부인이었다.

6월 18일 이남해와 왕권이 중국기선 편으로 먼저 귀국하고, 나머지 이육사, 호영, 유호(신병원), 이원, 진가명 5명은 浦江路金陵여관에 체류하면서 귀국준비를 기다렸다. 7월초 이원과 신병원이 떠나고, 이육사는 7월 15일 호영(문길환)⁸⁷⁾과 함께 중국기선 편으로 안동(지금의 단동)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 도착했다.⁸⁸⁾ 두 사람은 경의선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여 문길환은 고향 동래로 내려가게 되어 이육사와 헤어졌다. 서울에서 문길환과 헤어진 이육사는 안동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⁸⁹⁾

1기 졸업생 중에서 변절자도 나왔다. 장수정은 1934년 4월경 파견지 상해를 이탈해서 북경으로 간 후 일경에 투항해서 밀정이 되었고, 견습사관으로 있던 김세옥은 졸업 직후 학교를 이탈하여 천진으로 가서 역시 일경에 투항하고 첩자가 되었다. 또

87) 원문에는 胡平(尹益均)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인쇄오식이다.

88) 『앞의 책』 「이원록 심문조서」, 193쪽.

89)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9年(1934年) 12月 作成,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關係 被檢學者 一覽表」, 33-44쪽

한석평(본명 박준빈)도 1934년 10월에 파견지인 북경에서 일경에 투항하여 첩자가 되었으며, 3기 특무장을 거쳐 민족혁명단 특무부원으로 활동하던 지태선도 1936년 5월 상해에서 일경에 자진 투항했다.⁹⁰⁾ 따라서 1기생 26명 가운데 1937년말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거나 그 행적이 일경에 포착되지 않고 있던 졸업생은 양민산·김수길·김세일·노철용·유복산·윤세주·이상지·이창하·정일명·진가명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양민산·김세일·노철용·윤세주 4명⁹¹⁾은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가 창설될 때 간부로 활동했고, 이창하는 2~3기생 모집에 공로가 적지 않았지만, 1935년 여름 김원봉과의 의견충돌로 화북으로 떠난 후 행적이 묘연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아 조선혁명간부학교는 1기생의 국내 파견자들은 귀국 후 1~2년 사이에 전원 체포되어 의열단의 조직 확대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2~3기 입교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며, 의열단과 단장 김원봉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하여 1938년 10월 10일 漢口에서 발족한 조선의용대의 근간은 조선혁명간부학교 1~3기 졸업생이 주축이 되었으며,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임시정부측보다 한발 앞서 무력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90) 김영범, 『앞의 책』, 332-333쪽.

91) 『앞의 책』 333쪽에는 陳嘉明(최장학)도 조선의용대 창설대원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은 착오이다. 1938년 10월 10일자 漢口에서 촬영된 조선의용대 발대식 사진과 3기생 김학철이 남긴 조선의용대원 명단 속에는 陳嘉明의 이름은 없다.(김학철,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길림 연변인민출판사, 2002, 578-592쪽 참조)

IV. 의열단의 막후인물 朴文燾

1. 박문희의 항일활동

이제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박문희에 관한 기술은 거의 신간회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⁹²⁾ 신간회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1932년 10월 조선혁명간부학교에 1기생 5명을 입교시킨 사실만이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⁹³⁾ 그러나 1934년 1월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사건으로 그가 경상남도 경찰부에 체포된 이후부터 6월 19일 2년실형을 선고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그의 이름은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조선중앙일보 지상에는 자주 등장했고, 1936년 6월 19일 만기 출소한 사실도 동아일보에 보도될 만큼 그는 의열단의 막후인물로 부각되어 있었다. 먼저 그의 연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⁴⁾

1901년 10월 21일 동래에서 부친 朴容翰, 모친 金孟蓮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

1908년 2월 ~ 1911년 3월 동래 한문사숙에서 수학

1911년 4월 ~ 1914년 3월 동래공립보통학교 졸업

1914년 4월 ~ 1916년 3월 25일 동래 동명학교 고등과(3년제)

92) 이균영, 『앞의 책』, 역사와비평사, 1993(초판), 1996(3판) ; 스칼라노피 · 이 정식 외 6인 공저, 『신간회연구』, 동녘, 1983 ; 김창순 · 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권, 청계연구소, 1986.

93) 이균영, 『앞의 책』, 167쪽과 392.쪽

94) 박문희의 연보는 윤효정, 『신간회 해소논쟁기 중앙본부 주도층의 계급연합적 민족협동전선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53-55쪽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필자가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8회로 졸업

1916년 4월 ~ 1919년 3월 동래사립고등보통학교(동래고등학교 전신, 4년제) 3회로 졸업

1918년 1월 부친이 일제 식민지통치를 비판, 다대포에서 유서한 장을 남기고 자결.

1919년 4월 ~ 1922년 3월 서울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 졸업.

1922년 ~ 1924년 안성성결교회, 통영성결교회, 서울 독립문성결교회 전도사로 시무.

1924년 6월 3일 대구 신명여학교 출신 李道今과 결혼.

1925년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북풍회, 경성청년회 가입. 4단체합동 간친회 참여.

7월 5일 장녀 英淑 서울 영등포구 향촌동 154번지에서 출생.

11월 1일 동래청년연맹 창립을 주도하고, 창립준비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선출.

12월 경남청년연맹 창립대회에 참가하여 조직부 집행위원으로 피선.

1926년 1월 4일 사상단체 동래 협파회 창립을 주도하고, 서무부 위원으로 피선.

6월 28일 신간회 釜山 口 북대표.

9월 28일 정우회 집행위원으로 선출.

1927년 4월 ~ 1928년 12월 장인 李相潤의 권유로 일본대학 경제과에서 수학.

1928년 1월 5일 장남 承建 경북 달성군 유기면 금동 298번지에서 출생.

1929년 1월 8일 신간회 동래지회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본부

대표 회원으로 선출.

6월 신간회 복대표대회 부산지구 대표.

7월 4일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

8월 신간회 전국순회강연 시작⁹⁵⁾.

1930년 2월 광주학생의거 격문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구속
수감. 김병로 신간회 회장 등이 총독부와 교섭
하여 석방.

2월 22일 여동생 박차정을 중국 북경으로 망명시킴.

4월 8일 신간회 평안남북도 지역 순회강연.

5월 신간회 경남지역 순회강연.

11월 9일 신간회 제3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상무
집행위원으로 재선출.

12월 23일 경성지회 극좌파 콤그룹의 공격을 받게
되자 신간회를 탈퇴.

1931년 1월 잡지 『삼천리』 지에 「전국적 해소와 시기」
를 발표.

3월 중국으로 망명한 여동생 박차정이 북경에서
의열단장 김원봉과 결혼.

1932년 3월 16일 장남 承建 동래구 칠산동 319번지에서 사망.

7월 1일 차녀 惠淑 동래구 복천동 405번지에서 출생.

8월 남경을 방문하고 의열단장 김원봉과 그의 부인
된 동생 박차정을 만나고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 입교생 모집의뢰를 받음.

9월 14일 의열단장 김원봉으로부터 공작금 300원을
받아 귀국.

95) 「동아일보」 1930. 4. 7. 신간회 박문화·김진국의 순회강연 보도 이 강연에서
박문화의 강연제목은 「내외정세와 신간회의 당면과제」였다.

입교생 지원자 모집을 위해서 동래와 부산 지역 거주가 9명과 접선.

5명을 선발해서 남경으로 밀과함.

10월 4일 장인의 강압으로 부인 이도금과 합의이혼.

10월말경 상해를 거쳐 남경으로 가서 의열단의 조선 혁명군간부학교에 합류함.

1933년 12월경 입교생 추가모집을 위해 귀국, 동래자택으로 귀환.

1934년 1월 20일 입교시킨 1기생 5명이 부산에서 체포됨에 따라 배후인물로 피체.⁹⁶⁾

3월 24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⁹⁷⁾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부터 3년 구형을 받음.⁹⁸⁾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언도받고,⁹⁹⁾ 부산형무소에 수감. 이혼한 부인 이도금이 부친 몰래 동래로 내려 와서 옥바라지를 함.

8월 하순 모친과 막내동생 박문하 상해로 망명, 상해 望志路 212호 소재 김두봉 집에 도착. 김두봉의 부인 趙鳳元의 부탁으로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김공신이 안내하여 남경 蒼門口 64호 소재 김원봉 집에 도착. 박차정이 울면서 기뻐하며 모친과 동생 박문하

96) 송상도의 『騎驢隨筆』 430쪽에는 癸酉(1933년) 3월로 기록되어 있으나 1934년(甲戌年) 1월의 착오임. 동아일보 1934년 1월 29일자 참조.

97)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月報』 4권 5호, 1934년 8월 15일자, 78쪽.

98) 동아일보 1934년 6월 15일자.

99) 동아일보 1934년 6월 23일자.

를 맞이함.¹⁰⁰⁾

10월 형무소로 면회 온 부인으로부터 동생 박문호의 사망소식을 전해 들음.

1936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2년만기 출소. 출소 후 동아일보 동래지국 경영.

1937년 4월 13일 차남 義貞 동래구 칠산동 196번지에서 출생.

1940년 12월 29일 부인 이도금과 재혼인신고.

1943년 10월 4일 삼녀 信子 동래구 칠산동 196번지에서 출생.

1944년 ~ 1945년 8월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소재 동서의 과수원에 은둔생활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함.

1945년 7월 20일 장녀 英淑이 양산출신 李鍾大와 혼인.

1945년 8월 16일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과수원을 나와 단신으로 상경.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 각당 통일기성회 조사부¹⁰¹⁾

10월 19일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 교섭위원¹⁰²⁾

1946년 1월 10일 3남 義榮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에서 출생.

10월 좌우합작운동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한국민주당 탈당.

12월 민중동맹(김규식 등 한국민주당 탈당 세력들이 규합하여 조직된 중간파 정치조직) 결성에 참여.

100) 「金公信 심문조서(2회분)」, 213쪽.

101) 매일신보 1945년 9월 19일자.

102) 매일신보 1945년 10월 19일자.

- 1947년 5월 조선공화당(김약수) 창당에 참여하여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
- 1948년 1월 부산에서 일간지 「대중신문」을 인수하여 「대중일보」로 개명하고, 사장에 취임.
- 1949년 10월 「대중일보」를 김지태의 「부산일보」에 합병시키고 사임.¹⁰³⁾
- 1950년 6월말 6.25사변 직전 서울로 다니러 갔다가 북한군의 남침으로 동래로 피난 중해방불명.¹⁰⁴⁾
- 1965년 7월 25일 부인 李道今 동래구 수안동 306번지에서 사망.
- 1971년 2월 3일 모친 金孟蓮 동래구 수안동 421번지에서 사망.
- 1996년 1월 10일 차남 義貞 미국 피츠버그에서 신병으로 사망.
- 1997년 3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실종선고, 실종 심판확정.

상기 연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문희는 19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그의 역량은 일본대학 경제학부에서 1년 반을 수학하고 귀국한 후 신간회 동래지부에 참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신간회 동래지부 복대표로 선출되어 중앙무대로 진출했으며, 1929년 7월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전국순회 강연을 통해서 신간

103) 김대상, 『부산경남언론사연구』, 대왕문화사, 1981, 186-187쪽.

104) 차남 朴義榮(1946년생) 목사의 증언. 일부에서 박문희가 월북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진월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면 당시 북한정권에서 실세로 있던 김원봉, 김두봉, 이주연 등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신간회 시절의 동지들과 만났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회의 이론가로 명망을 얻었다. 이러한 점은 1929년부터 1931년 사이에 그가 각종 잡지에 기고한 논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의 이념은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조선과 조선민중이 나가야 할 길은 이념적 투쟁보다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중이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간회가 모스크바의 영향을 받은 극좌파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그는 실망하고 신간회를 떠났다. 이때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김원봉·박차정 부부였다.

그가 의열단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여동생 박차정 부부의 요청이기도 했지만, 동생 박문호도 일본 나가사키 소재 우라카미형무소에 수감되고 있어 그는 동생부부의 제의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일투쟁에 뛰어들자 1남 2녀를 둔 가장으로서 강제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의열단 참여는 그에게 2년간 감옥살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고, 수형생활 도중에 동생 박문호의 사망이라는 비보를 접했다. 그의 가정은 3남매가 항일전선에 나섬으로서 일제의 감시가 더욱 극심해졌으며, 일찍 5남매를 두고 혼자가 된 모친에 대한 불효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한편, 조선의 현실은 민족진영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친일파가 극성을 부리는 형국으로 변모되고 있었다. 변절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36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를 나온 그는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은거생활에 들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시시로 급변하여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41년 12월에는 마침내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갔다. 조선의 지식인으로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숨어사는 길 밖에 없었다. 그

는 가족을 이끌고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에 있는 동서의 과수원으로 들어가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신간회 회장으로 모셨던 김병로가 가족을 이끌고 경기도 양주로 가서 은둔생활을 한 것¹⁰⁵⁾과 같은 맥락이었다.

드디어 일제가 패망했다.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서울로 올라 간 그는 해방된 조국이 좌우익 간의 충돌로 소란한 정국 속에서 여러 단체에 참여했다가 실망만을 안고 다시 낙향하여 대중일보의 경영을 맡아 잠시 언론계에 투신하기도 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일제치하에서 사회운동을 함께 했고, 그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던 동지들은 그에게 1950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정계에 발을 들여 놓지는 않았다. 일제에게 동생 둘을 잃은 그에게 정치란 무상 것이었다.

2. 박문회가 포섭한 입교지원자들

박문회가 처음 중국으로 간 것은 1932년 8월이다. 부산항에서 기선 慶安丸 편으로 상해에 도착해서 모친의 4촌동생 김두봉을 만나고 김원봉·박차정 부부가 있는 남경으로 갔다. 이때가 김원봉이 황포군관학교 4기 동기생 藤傑과 잡지 『신동방』 발행인 간국훈의 도움으로 국민당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¹⁰⁶⁾

북경 레닌주의정치학교가 2기생을 배출하고 자금사정으로 중

105) 김학준, 『앞의 책』 237쪽.

106) 干國勳, 「조선 의열단원의 군사교육(1932-1936) -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의 단면사」, 『군사』 제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2, 138-141쪽.

단했던 김원봉에게는 새로운 항일투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였고, 민족독립운동전선에서 의열단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학교의 교사는 물론, 운영자금과 무기는 중국 국민당측이 제공하고 교관진과 학생선발 및 운영은 전적으로 의열단장 김원봉이 주도하는 조직체계였다.

1927년 국민당정부의 북벌에 황포군관학교 출신 의열단원들이 대거 참가한 공로를 장개석은 높이 평가했고, 또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에 분노한 국민당정부는 조선의 젊은 청년들과 연계하여 공동전선을 펴는 것도 의미있는 전략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입교지원자를 모집하는 일이었다. 이때 박문희가 도착한 것이다. 김원봉·박차정 부부는 그에게 고국으로 들어가 입교지원자를 모집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원봉으로부터 300원의 자금을 받은 박문희는 9월 14일 남경을 출발하여 상해에 도착해서 중국 기선편으로 청도로 갔다.¹⁰⁷⁾ 동생 박문호가 횡령 및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 일본 우라카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동생 박차정도 일제의 요시찰대상인 不逞鮮人 가족이다. 더구나 박문희 자신도 신간회 중앙본부 간부로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경험했던지라 신변안전을 고려해서 상해에서 부산으로의 직행보다 청도와 인천항이라는 우회항로를 택했던 것이다.

9월 20일경 부산에 도착한 박문희는 거창출신 신간회 회원 慎秉垣(1910년생, 의학강습소 졸업, 가명 : 柳湖, 兪亨白, 兪超), 동래출신으로 동래노동조합원 朴麟浩(동래고보 5회¹⁰⁸⁾), 동래출신

107)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118쪽.

108) 동래고등학교 역사관 소장, 「졸업생 동향기록부」 42쪽. 이 기록부는 동래고보 졸업생 중에서 요시찰인물의 동향을 학교가 정기적으로 동래경찰서에 보고하는 문서철임.

金永培(가명 : 朴三龍, 王權), 동래출신 文吉煥(가명 : 胡瑛, 부산제2상업 19회),¹⁰⁹⁾ 동래출신 宋景禧(동래고보 6회), 동래출신 崔章學(부산제2상업 출신, 가명 : 陳嘉明), 동래출신 李懋庸(동래고보 5회, 가명 : 權炳龍, 李南海), 동래 일신여학교 3년생 李明淑, 부산 대청정 미곡비료상 공영상회 직원 梁承鎬 등을 접촉하고,¹¹⁰⁾ 이들 9명 중에서 입교를 희망하는 이무용·김영배·문길환·최창학·신병원 5명으로부터 최종 승낙을 받고 상해로 가는 선표와 여비를 제공했다. 박문회가 선발해서 상해로 보낸 입교지원자는 2개 팀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 개별적으로 접선해서 입교승락을 받는 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¹¹¹⁾ 기밀유지 때 문일 것이다.

10월 2일 부산항을 출항하는 기선 慶安丸 편으로 김영배·이무용·신병원 3명은 상해에 도착하여 박문회가 시키는 대로 民信의원으로 가서 의열단원인 韓一來(가명 韓韋松)를 만나 그의 소개장으로 가지고 다시 남경으로 가서 李春岩의 안내로 10월 20일 1기생으로 입교했다. 신병원이 상해에서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후 1934년 12월 25일자 경기도 경찰부에서 받은 피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1932년 9월 25일경 부산으로 가서 초량정의 어느 하숙집에 투숙하며(일본으로 갈) 도항증명서를 주선하고 있던 중 초량거리에서 박문회를 만났는데, 그의 소개와 추천으로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10월 2일 경안환에 승선하려고 부두로 갔더니 박문회가 李南海(이무용), 王權(김영배)이라는 두 청년을 데리고 와서 소개해 주었다”¹¹²⁾라고 했

109) 金三根, 『앞의 책』, 412쪽.

110) 「軍官學校事件ノ真相」, 「11. 軍官學校卒業生其ノ關係者ノ活動狀況」, 250-251쪽.

111)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발행, 『思想彙報』 제4권, 「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 義烈團經營の南京軍官學校の全貌」, 1934, 115-116쪽.

다. 따라서 1차 출발팀은 신병원·이무용·김영배 3인이며, 박문회가 9월 20일경 남경에서 돌아와 바로 입교 희망자 포섭에 나섰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어서 문길환과 최장학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상해에 도착해서 韓一來을 만나 교관 李銘環(본명 이호철)의 소개장을 받아 10월 24일 남경에 도착해서 1기생으로 입교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제1기생 26명 중에서 박문회가 선발해서 보낸 입교생은 5명이며, 이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¹¹³⁾

1) 이무용(입교시 가명 이남해)

1911년 5월 10일생. 본적 및 현주소 경남 동래군 동래읍 수안동 367번지. 1925년 동래공립보통학교 졸업, 서울 중동중학교 재학중 신병으로 자퇴. 동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 박문회의 권유로 1932년 10월 중국 남경으로 가 1기생으로 입교. 1933년 6월 18일 상해에서 중국 정기선 成都號 편으로 안동을 거쳐 만주 봉천에서 철로편으로 귀향. 1934년 1월 23일 경남 도경찰부에 체포되어 3월 16일 검찰에 송치, 3월 24일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

2) 문길환(입교시 가명 호영)

1912년 12월 27일생. 본적 경남 동래군 동래읍 교동 305번지, 현주소 경남 동래군 동래읍 교동 462번지. 부산제2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사건 탄압 항의문 배포혐의로 1930년 1월 9일 체포, 11월 4일 부산지방법원과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12) 「신병원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권, 173-174쪽.

113) 「軍官學校事件ノ真相」, 「11. 軍官學校卒業生其ノ關係者ノ活動狀況」, 122-132쪽;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月報』 4권 5호, 1934년 8월 15일자, 115-116쪽.

각각 징역 10월을 언도 받고, 1931년에 출감. 1932년 10월 10일 박문회의 권유로 남경으로 가서 1기생으로 입교. 1933년 7월 14일 상해를 출발하는 중국 정기선 편으로 안동에 도착,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서 철로편으로 서울을 거쳐 동래로 귀향. 1934년 1월 29일 경남 도경찰부에 체포되어 3월 16일 검찰에 송치, 3월 24일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

3) 김영배(입교시 가명 왕권)

1911년 12월 25일생. 본적 경남 동래군 동래읍 수안동 354번지, 현주소 경남 동래군 동래읍 칠산동 272번지. 1926년 동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박문회의 감화를 받아 동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932년 10월 이무용과 함께 박문회의 권유로 남경으로 가서 1기생으로 입교. 1933년 6월 19일 상해에서 중국 정기선 成都號 편으로 안동, 다시 육로로 신의주에 도착하여 철로편으로 귀향. 1934년 1월 23일 경남 도경찰부에 체포되어 3월 16일 검찰에 송치, 3월 24일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

4) 신병원(입교시 가명 유희)

1907년 9월 2일생. 본적 경남 거창군 거창면 정장리 51번지. 거창청년동맹 연락조직부장을 거쳐 신간회 거창지부에서 활동.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1930년 5월 경남지방 순회강연에 참가했던 박문회를 처음 만나게 됨. 사립학습을 이수한 후 1931년 평양 箕城의학강습소를 졸업하고 1932년 부산에서 매약업에 종사하던 중 박문회를 다시 만나 그의 권유로 10월 남경으로 건너가 1기생으로 입교. 1933년 4월 졸업한 후 상해방면에서 지하공작에 참가. 박문회 외 동래출신 동기생 3명이 이미 부산에서 체포된 사실을 모르고 1934년 10월 9일 귀국을 위한 거주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상해 일본총영사관에 갔다가 신분이 탄로나 체포됨.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¹¹⁴⁾ 12월 24일 경기도 경찰부로 이송되

어¹¹⁵⁾ 극심한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석방 되었으나 1936년 10월 16일 30세로 사망.¹¹⁶⁾ 1995년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이 추서됨.

5) 최장학(입교시 가명 진가명)

1909년 4월 11일생. 본적 경남 동래군 동래읍 교동 469번지. 1927년 4월 부산제2상업학교 재학시 항일학생단체 흑조회를 조직했다가 1928년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1929년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 1932년 10월 박문회의 권유로 문길환과 함께 남경으로 건너가 1기생으로 입교. 1933년 4월 졸업 후에는 학교에 남아 인쇄업무에 종사. 그 후 그는 의열단 창단단원 권준(황포군관학교 4기, 육사8기 1차로 예비역 육군소장)의 사위가 되어 의열단 대열에서 이탈,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광복군이 창설되자 제1지대원이 되었다가 중경에서 광복을 맞이함. 1946년에 광복군 자격으로 귀국한 그는 1949년 2월 육사8기 4차로 입교하여 3월 29일 소위로 임관되어 육군장교로 근무.¹¹⁷⁾ 1977년 건국포장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 되었으며, 1982년까지 충남 유성에 생존해 있었음이 확인됨.

상기 5명 이외에 박문회가 접촉했던 인물은 동래노동조합원 박인호(동래고보 5회)와 송경희(동래고보 6회)뿐만 아니라 일신여학교 3년생 이명숙과 부산 대창동 미곡비료상 공영상회 직원 양승호 등 4명이 더 있다. 그런데 이들 4명은 출국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중국에 있다는 이 학교에 대한 불안

114) 宋相燾, 『앞의 책』, 430쪽.

115) 조선일보 1935년 1월 6일자.

116) 이대수, 001, 『앞의 책』, 고구려, 91쪽.

117) 金在勝, 『만주벌의 이름 없는 전사들』, 도서출판 해안, 2002, p.273.

감 때문에 중도에 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5명의 입교 수락자가 부산항을 떠난 후 박문회도 남경으로 향했다.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신간회를 통한 사회혁신운동으로 나돌아 다니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의 장인 李相潤이 부인 李道今과 강제이혼을 시킨 것이 1932년 10월 4일이니¹¹⁸⁾ 직후 그는 다시 남경으로 가서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의열단의 항일활동에 합류한 것이다.

박문회가 선발해서 보낸 5명 중에서 文吉煥은 1912년 12월 27일 동래 교동 305번지 출생하여 동래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부산 제2상업학교 19회로 입학했다. 3학년 재학 중인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소식을 전해 듣고 4학년 장남현, 3학년 임기홍과 함께 궤기할 것을 논의하고 12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과 민중들에게 배포할 격문 3종 「싸우는 음보」 1800매, 「피압박민족대중에게 격한다!」 2400매, 「대한 동포여 들어라!」 2200매를 준비하고 1930년 1월 7일 밤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그는 퇴학처분을 받았다. 주동자 5명 중 한 사람인 문길환은 1930년 1월 9일 경찰에 체포되어 1월 22일 출판법 및 보안법위반 혐의로¹¹⁹⁾ 검찰에 송치,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언도 받았고 1931년에 출감했

118) 박문회·이도금의 호적등본에 의함. 이들 부부는 1940년 12월 29일 다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장남 朴義貞이 1937년 4월 13일 부산 동래 칠산동 196번지에서 출생한 것을 보면 적어도 재혼인신고 이전인 1936년 6월에 이미合家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박문회가 의열단간부학교 입교생 사건으로 1936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2년형을 마치고 출소하자 합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수형생활 중에 이미 부인 이도금이 옥바라지를 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 그의 강제이혼은 장인의 강권에 의한 일시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119) 金義煥, 1990, 「일제하 부산의 학생항일 독립운동」, 윤병석 교수 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585-586쪽.

다.¹²⁰⁾ 그가 박문희와 처음 접선한 것은 1932년 10월 10일이었으니¹²¹⁾ 학교도 퇴학당하고 출옥 후 일경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박문희의 권유를 수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金永培는 1910년 동래 칠산동 171번지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6년 동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박문희의 감화를 받아 민족적 사회주의를 신봉하게 되었고, 동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¹²²⁾ 1930년 2월 동래소년동맹사건으로 체포된¹²³⁾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李懋庸은 1911년 5월 10일 동래 수안동 367번지에서 출생하여 1925년 동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래고등보통학교(동래고보)에 입학했다가 서울 사립중등학교로 전학했지만 신병으로 중도 자퇴했다. 고향 동래로 돌아 온 그는 동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내다가 1932년 10월 박문희의 권유로 중국 남경으로 가게 된 것이다.¹²⁴⁾

愼秉恒은 1907년 9월 2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51번지에서 출생하여, 1925년 거창 昌南학술강습회에서 수학하고 1927년 중외일보 거창지국을 경영하는 한편, 신간회 거창지회 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1928년 8월부터 신간회 동래지부 간부인 박문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29년 4월 신간회 거창대회 조직부장으로 활동 했으며, 1930년 5월부터 1931년 4월까지 1년간 평양 箕城의학강습소에서 수학했다. 중국 북경과 만주 등 여러 곳을 전전하던 그는 1932년 부산으로 와 약종상을 하다

12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930년 11월 29일자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제 87호 ;李大壽, 『앞의 책』, 60쪽.

121)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122-123쪽.

122) 「위와 같음」, 131쪽.

123) 조선일보 1930년 2월 15일자.

124)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123쪽.

가 9월 25일경 우연히 부산 초량거리에서 박문희와 재회를 해서 입교를 권유를 받았다.¹²⁵⁾

崔章學은 1909년 4월 11일 동래군 동래읍 명륜동 469번지에서 출생하여, 1927년 부산제2상업학교 재학 당시 학생 10여명과 함께 黑潮會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하다가 1928년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1929년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¹²⁶⁾

따라서 박문희가 선발해서 보낸 5명은 일제가 소위 불령선인으로 지목된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박문희가 중국에서 조선청년들을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며, 상해까지 가는 船票는 물론 여비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니 입교를 수락하고 부산항에서 朝鮮郵船株式會社 소속 정기선 慶安丸(총톤수 2,028톤)을 타게 된 것이다. 1진은 김영배·이무용·신병원 3명이었고, 2진은 문길환·최장학 2명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문희에게 입교를 수락한 5명 중에서 신병원·이무용·김영배 3명은 10월 2일 부산항을 출항하는 조선우선 정기선 慶安丸¹²⁷⁾을 타고 출발한 것이 분명하며, 몇일 후 문길환과 최장학이 역시 경안환을 타고 부산항을 출발했다.

125) 宋相燾, 『앞의 책』, 430쪽 ;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被檢舉者 一覽表」, 132쪽 ; 「신병원 심문조서」.

126) 동아일보 1929년 9월 16일자, 9월 26일자.

127) 조선우선(주)가 1925년 11월에 진수한 2,084톤급 화물선으로 原名은 白頭山丸. 선명이 식민지 조선인들을 자극한다 하여 1931년 慶安丸으로 改名하고 부산과 상해 정기선으로 취항.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인 1944년 일제에 강제징발되어 군수품을 수송하다가 1944년 9월 11일 필리핀 마닐라를 출항하여 남방으로 항해하다가 미군 함재기의 피격을 받고 9월 12일 오전 9시에 침몰하여 일생을 마쳤다.(駒宮眞七郎, 『戰時船舶史』, 自家出版, 日本 사이다마현 오미야시, 1991, p.74 ; 金在勝, 「1945-1952년 우리나라 외항선 현황」, 『해운물류연구』 제40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4, 161쪽.

1기생 金公信이 1935년 2월 26일 상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되어 경기도 경찰부에 이송 후 받은 경찰신문조서에서 “이미자와 같이 부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金聖濟(가명 陳岩, 1기생)과 그의 아내 정경숙과 함께 부산역 부근에 있는 계림여관에서 1박하고, 다음날 경안환에 승선하여 1932년 10월 20일경 상해에 도착했다. (중략) 그 배안에서 1기생 입교예정자가 2명 더 있었다. 그들이 입학한 후에 陳嘉明(崔章學)과 胡瑛(文吉煥)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 했으니,¹²⁸⁾ 최장학과 문길환이 부산항을 출발한 것은 10월 15일경이 된다.

1932년 9월 20일경 남경에서 김원봉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선혁명간부학교 입교생을 모집하기 위해 비밀히 입국한 박문회는 부산과 동래를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짧은 기간에 9명을 접선해서 5명을 선발하여 출국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간회, 동래노동조합 및 동래청년회 활동을 통해 젊은 청년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3. 남경에서의 朴文燾 · 李陸史 · 尹世胄

우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민족시인 이육사(1904~1944년)가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육사가 입학할 당시 29세이니 1기생 26명 중에서는 32세의 윤세주(1901~1943년)와 함께 비교적 장년대원에 속한다. 이미 1928년 10월 18일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피의자로 검거되어 8개월간의 옥고를 치렀고, 1929년 10월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예비검속으로 체포된 바가 있었으며, 1930년 11월 대구격문사건에 연류되어 동생 원일과

128) 「金公信의 聽取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권, p.198.

함께 대구경찰서에 피검되어 6개월간 옥고를 겪은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미 3차례나 일경에 의해서 옥고를 겪은 그는 1932년 중국으로 갔다가 천진에서 윤세주의 권유를 받고 남경으로 가서 1기생으로 입교했던 것이다.

그가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교하게 된 경위와 교육과정 및 졸업 후 1934년 5월 22일 경기도 경찰부에 검거되기까지의 정황은 6월 17일자 서울 本町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李活 심문조서」¹²⁹⁾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입교하게 된 동기는 ;

“소화7년(1932년) 6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만몽일보 설립을 위하여 봉천에 온 金乙漢과 서탑의 근화여관에서 자주 만났는데, 그곳에서 이전부터 잘 아는 중외일보 기자였던 윤세주도 방문하여 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의형제인 安炳喆도 나를 의탁하여 그해 5월경부터 봉천에 체재중이었다. 마침 그해 7월경 나와 안병철이 천진 방면으로 간다고 했더니 윤세주도 용무가 있으니 함께 가지고 해서 천진으로 갔으나 적당한 취직처가 없었으므로 나는 안병철을 천진에 두고 북경까지 가게 되어 그 뜻을 윤세주에게 말했더니 윤은 자기도 일단 북경으로 갔다가 다시 천진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먼저 출발하고, 수일 후에 나도 북경으로 갔으나 역시 적당한 취직처가 없었으므로 다시 천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9월 초순경에 천진의 중국거리, 이름은 알 수가 없으나 중흥여관에서 윤세주, 안병철과 나 3인이 만난 자리에서 윤세주가 비로서 자기는 의열단원이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윤세주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아무 말도 하

129) 『앞의 책』 「이활 심문조서」, pp.151-159.

지 않았지만 김원봉은 나의 동향사람으로 현재 북경에 체재중이란 말을 듣고 의탁하고자 왔더니 사실은 남경에서 국민당 정부의 원조를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안병철 군도 젊으니 그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겠느냐, 또 이활 군도 취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학하라고 권유 했으므로, 나는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은 테러리즘의 전형이므로 현재로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나는 북경에 친구가 있으니 그곳에서 일할 생각이므로 지금 대답할 수 없다. 안병철은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것이므로 직접 교섭하도록 말했다. 나는 다시 북경으로 가서 趙世綱¹³⁰⁾을 방문하고 약 3주간을 체재하면서 취직운동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김원봉의 주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결심하여 다시 천진으로 돌아와서 윤세주를 만나서 입대(입교)의 결의를 말했다. 그리하여 윤세주의 지시를 받아서 9월 말경 남경에 있는 五洲공원 근처의 중국인 별장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간부훈련반 제6대(조선혁명간부학교의 대외명칭 : 필자주)에 입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벌써 14명 정도 모여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5일쯤 체재하고 있는데, 교관 김원봉(사실은 교장 겸 대장)이 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일행을 인솔하고 남경 시외 普寺廟로 가서 그곳 병영에 숙박시키고, 그 해 10월 10일(10월 20일의 착오)에 개학식을 하고 드디어 대원이 되어 6개월간 교련을 받게 되었다.”¹³¹⁾

상기 이육사의 심문조서는 日警의 심문에 응한 것이라 다소간 숨긴 것도 있을 것이나 그가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

130) 이육사가 1930년 북경대학 사회학과에서 수학할 때의 중국인 친구.

131) 『앞의 책』 「이활 심문조서」, 152-153쪽.

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윤세주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두 사람은 고국에서도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상호간에 의열단원이라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윤세주가 비로소 “나는 의열단원이다”라고 처음 밝혔기 때문이다.¹³²⁾

윤세주는 경남 밀양출신으로 당시 32세(1901년생), 이육사는 경북 안동출신으로 29세(1904년생), 박문희는 경남 동래출신으로 32세(1901년생)로, 이들은 거의 동년배에 해당되며 같은 경상도 출신자들이다. 더구나 윤세주는 김원봉의 최측근이고, 박문희는 김원봉의 손위 처남이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은 국내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옥고를 겪고 탈출해 온 투사들이라 이심전심으로 뜻이 통했던 동지였다. 이육사와 박문희는 노을옹의 폭력사건 이후에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4. 박문희의 피체와 투옥

1933년 4월 20일 1기생 졸업 후 박문희가 추천했던 5명 중에서 김영배·이무용·문길환 3명은 국내파견으로 결정되어 남경 박문희 집에서 待命하다가 상해로 나와, 이무용과 김영배는 5월 30일 중국기선 成都號 편으로 먼저 상해를 출발해서 만주를 거쳐 신의주에서 철로편으로 귀향했고¹³³⁾, 문길환은 이육사와 함께 중국기선 편으로 7월 14일 안동(지금의 단동)에 도착하여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서 경의선 기차편으로 서울로 들어와 이육사와 헤어지고 동래로 내려왔다.¹³⁴⁾ 따라서 문길환이 동래로 귀환한

132) 『앞의 책』 「이환 심문조서」, 153쪽

133)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學者 一覽表」, 123쪽과 131쪽.

134) 『앞의 책』 「이원록 심문조서」 1934년 6월 17일자 및 6월 19일자 ;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學者 一覽表」, p.125. 이

것은 7월말경으로 추정된다.

이들 3명이 의열단장 김원봉으로부터 받은 지령은 2기생 모집과 지하공작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한편, 중국에 남은 2명 중에서 신병환은 일단 청도로 파견되어 활동하기로 했고, 최장학은 학교에 남아 인쇄업무를 맡았다. 국내로 밀파된 3명이 귀국한지 6개월이 지난 1934년 1월 23일 김영배가 먼저 체포되었고, 이어서 문길환·이무용·박문희가 경상남도 경찰부에 체포되었다.¹³⁵⁾ 이들이 이렇게 쉽게 체포된 것은 아마도 1932년 9월 박문희가 귀국해서 접촉 했었으나 출국을 하지 않은 박인호·송경희·이명숙·양승호 4명 중 누가 발설한 첩보가 일경의 첩보망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아닐지 모르겠다.

1934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에는 “상해에서 귀향한 네 청년 검거, 해외와 연락관계 혐의인 듯, 취조에 따라 사건은 확대”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다음날인 1월 28일 조선중앙일보에서도 “東萊署 아연 긴장, 상해에서 온 청년 검거, 모종계획을 한 혐의가 농후하여, 朴文燾 외 3명 검거”라는 보도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¹³⁶⁾ 이 기사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체포된 것은 김

육사가 5월 22일 체포된 것은 박문희 외 3명이 동래에서 체포되어 그가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135)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122-123쪽, 131쪽에서는 “1934년 1월 23일 김영배와 이무용, 1월 29일에는 문길환, 2월 3일 박문희가 각각 경상남도 경찰부에 체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당시 동아일보 관련기사에 따른다.

136) 박문희 체포와 관련되어 나온 당시 보도기사는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34년 1월 27일자, “상해에서 귀향한 네 청년 검거, 해외와 연락관계 혐의인듯, 취조 따라 사건 확대.” 조선중앙일보, 1934년 1월 28일자, “동래서 아연 긴장, 상해에서 온 청년 검거, 모종계획을 한 혐의가 농후하여, 박문희 외 3명을 검거” 동아일보 1934년 2월 19일자, “상해서 돌아온 청년, 반일단체의 연락, 동래청년사건의 내용이 복잡”, 1934년 3월 15일자, “상해서 온 네 청년, 박문희단 送局”, 1934년 5월 20일자, “의열단원 박문희 終審

영배였고, 이어서 1월 25일 문길환과 이무용이 검거되었으며, 박문희는 신병으로 동래자택에서 치료중이라 구속수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의 신문보도 기사나 日帝의 수사기록에서 박문희는 2기생 입교 “지원자 모집에 분주하던 중 체포된 것”¹³⁷⁾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는 남경에서 김원봉·박차정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다시 귀국했던 것인데, 그 시기는 1933년 12월경으로 추정된다.

1934년 1월 체포된 김영배·이무용·문길환 3명은 3월 13일 기소유예처분¹³⁸⁾을 받아 3월 24일 석방되고, 박문희만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기 졸업생 세 사람은 자신들이 조선혁명간부학교로 가게 된 것은 박문희의 권유였으며, 그가 중국에서 무료로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渡航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며 모든 책임을 박문희에게 미루었다.

- 군사위원 간부모집”, 1934년 6월 14일자, “박문희 공판”, 1934년 6월 15일자, “박문희에게 3년을 구형”, 1934년 6월 23일자, “의열단원 박문희 2년 役으로 언도”.

137)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118쪽.

138) 동아일보 1934년 3월 15일자.

[illegible]

1934년 6월 박문희의 1심 재판기록
(왼쪽 5번째가 박문희 기록,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발행, 『思想月
報』 제4권 5호, 1934년, 22쪽)

박문희의 치안유지법위반사건 판결 결과표¹³⁹⁾

정명	확정	3심		2심		1심		기소	성명	연령
		월일	판결	월일	판결	월일	판결			
부산	34. 6.19.	-	-	-	-	34. 6.19.	징역2년	34. 3.24.	朴文禧	34

「참고 : 原文에서 年度는 昭和9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박문희의 죄목은 치안유지법위반이며, 1934년 3월 24일 기소되어 6월 12일 3년 구형을 받고 1주일만인 6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은 바로 확정되어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

139)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발행, 『思想月報』 4권 5호, 1934년 8월 15일자, 78쪽.

다. 그는 일제치하에서 자신의 항소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포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체포되었던 김영배·이무용·문길환 3명은 검찰심문에서 불기소처분되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발행 『思想月報』 4권 5호(1934년 8월 15일자) 자료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들 3명은 박문희가 중국에서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박문희도 시인하여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동향의 젊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그가 부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1932년 10월 장인 李相潤에 의해 강제이혼을 했던 부인 李道今이 경북 달성군 현풍에 있는 친정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옥바라지를 했다. 부친의 엄명으로 일시이혼을 했으나 이들 부부에게는 이미 1남 2녀의 3남매가 있었고, 부부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박문희는 1936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만기 출소했다.¹⁴⁰⁾

큰 아들 박문희는 부산형무소에, 둘째 아들 박문호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자 막내아들과 어렵게 동래에서 지내던 모친은 막내 박문하(당시 17세)를 데리고 딸 박차정이 있는 중국 남경을 향해 비밀히 부산항을 떠났다. 박차정 부부가 부른 것인데, 이때는 1934년 8월 중순경이었다.

한편, 신병원은 졸업 후 靑島로 파견되었다가 1934년 5월 26일 상해로 와서 하남·개봉·한구·의창·사천성 만현 등지에서 활동했다. 그는 귀국을 하기 위해 상해 일본총영사관으로 거주

140) 이대수, 『앞의 책』, p.67. 한편, 이성규의 『항일 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 117쪽에서 “박문희가 1935년 5월 『해성』 1권 3호에 「사상단체에 보내는 독촉장, 재조직기에 임한 노농총동맹」이라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쓰고 있다. 이때 박문희는 부산형무소에 수감 중이라, 이것은 1931년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증명서를 받으러 갔다가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출신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어 10월 9일 총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되어¹⁴¹⁾ 나가사키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12월 24일 경기도 경찰부로 이첩되어¹⁴²⁾ 본격적인 심문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영배·이무용·문길환 3명이 국내에서 체포되어 이미 日警으로부터 심문조사를 받았고, 박문희도 이들의 배후인물로 검거되어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본총영사관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된 것이다. 따라서 박문희가 입교시킨 5명 중에서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나 그의 수형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1934년 12월 25일 경기도 경찰부 순사 劉承雲과 李泰淳이 작성한 심문조서¹⁴³⁾만 전해오고 있다. 그가 1936년 10월 16일 사망한 것으로¹⁴⁴⁾ 보아 정식재판을 받기도 전에 고문후유증으로 殉國死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서대문형무소 수형자 명부에는 그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¹⁴⁵⁾ 그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고문으로 빈사상태에 빠지자 가석방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박문호의 순국사와 같은 경로를 걸었던 것이다. 1995년 애국장이 추서 되었다.

졸업 후 학교에 남았던 최장학은 교내 인쇄담당 요원으로 잔류하다가 1935~1937년 강서성 중앙군관학교 星子分校에서 수학 후 中山대학 법학부로 진학했다. 그는 1919년 11월 10일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이 창단될 때 창립단원 13인 중 한 사람이자 남

141) 「軍官學校事件ノ真相」, 「2. 軍官學校 關係 被檢舉者 一覽表」, 132쪽.

142) 조선일보 1935년 1월 6일자.

143)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31권, 172-182쪽에 수록되어 있다.

144) 이대수, 『앞의 책』, 91쪽.

145) 1988년 서울특별시 발행, 『구서울구치소 보존대장 시설현황 및 관련자료 연구조서(II)』. 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명부에서 박문호는 “1907년 10월 16일생, 치안유지법위반, 기록일자 1934년 4월 5일”로 기재되어 있다.

경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관 권준(신흥무관학교 수료, 황포군관학교 4기생, 귀국 후 육사 8기 1차로 입교하여 대령으로 임관, 예비역 육군소장)의 사위가 되었으며, 권준이 생활비 지급문제로 김원봉과 다투고 결별하고는 漢口 국민당군으로 가자¹⁴⁶⁾ 최장학도 의열단을 떠났다.

그는 1940년 9월 17일 重慶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제1지대원이 되었다. 해방 후에 귀국한 그는 1949년 2월 육사8기 4차로 입교하여¹⁴⁷⁾ 육군장교가 되었으며, 1982년 현재 충남 유성에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에게는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애국장이 수여되었는데, 이것은 광복군으로써의 공로로 받은 건국공로훈장이었다.

V. 결 언

본고는 부산지방 항일투쟁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박문희의 항일투쟁 행적을 규명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을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여동생 박차정에게는 1995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 되었으나, 두 오빠 박문희·박문호 형제는 1996년 독립유공자 자격심사에서 기각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 형제는 김원봉과 처남지간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인물이기 는 하나, 이들이 사회주의 항일투쟁에 참가했을 당시만 해도 의열단은 민족주의를 표방했고, 일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2~3기 출신자 중에서 1938년 10월 10일 漢口에서 발족한 조선의용대에 참여했다가 후일 대원의 일부가 北

146) 김영범, 『앞의 책』, 307-308쪽.

147) 金在勝, 『앞의 책』, 273쪽.

上하여 연안으로 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면서 급격히 좌경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문희·박문호 형제가 활동했던 시기의 의열단은 사회주의를 표방했으나 급좌경화가 되기 이전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형제의 항일투쟁을 북한식 좌익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은 역사인식의 오류에서 나온 실책이라 하겠다. 박문희·박문호 형제의 항일투쟁은 조국독립을 위한 민족적 사회주의 인식에서 나온 것임은 각종 일제의 기밀문서와 당시 신문지상의 보도로도 명백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박문희 사상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 자격으로 전국순회 강연내용이나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월간 『삼천리』를 비롯한 각종 잡지에 기고한 논설을 보아도 그의 사상적 기조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 북한식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또 1930년 12월 신간회 중앙본부 간부직을 사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급진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성지부의 콧그루미 그를 공격대상으로 삼아 소위 ‘박문희사건’을 확대시켜 신간회 지도부를 공격¹⁴⁸⁾했기 때문에 사임했던 것이다.

급진좌파의 속성을 신간회 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박문희가 해방 후 중앙정계에서 좌우합작에 참여하다가¹⁴⁹⁾ 실망하고 낙향하여 1948년 1월 좌익성향의 大衆新聞 경영권을 李壽又와 함께 인수하고, 제호를 大衆日報(1949년 10월 부산일보에 합병)로 바꾸는 한편, 신문의 논조에서 좌경성을 배제한 사실로¹⁵⁰⁾ 보아도 해방 후에 그를 사회주의식 좌파로 분류하는 것은 그의 사

148) 이성규, 2006, 『항일 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 지식산업사, 136-143쪽.

149) 1945년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 박문희”; 매일신보 1945년 9월 19일자, “각당 통일기성회 조사부 박문희”; 매일신보 1945년 10월 19일자, “각정당 행동통일위원회 교섭위원 李甲成, 明濟世, 朴文燾” 등.

150) 金大商, 『앞의 책』, 186쪽.

상적 기초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 모집으로 부산형무소에서 2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박문희나 북경 레닌주의정치학교 활동에 참가하던 중 일경을 피해서 천진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나가사키 소재 우라카미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온 박문호는 이 일로 다시 일경에게 체포되어 가출옥한지 한 달이 되지 못해 사망했으나 아직도 이들에게 독립유공훈장이 추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산지역항일투쟁사에서 아쉬운 일이다.

2006년 부산시에서 간행한 『부산을 빛낸 인물』 2권 속에 여동생 박차정은 수록되어 있으나 큰오빠 박문희와 작은오빠 박문호는 없다. 앞으로 간행될 후속편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다. 아울러 현재 생가에 조성되어 있는 「박차정기념관」도 「박문희·박문호·박차정기념관」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박문호는 향리 동래에서는 동래사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학력뿐이다. 누나(수정)와 여동생(차정)도 여학교를 졸업했으나, 그도 면학의 욕망은 있었을 것이다. 1929년 3월 동래누룩조합 공금 1,500원을 훔쳐서 북경으로 달아난 목적은 면학에 있었다. 동래 청년동맹 書庫에서 사회주의 사상서적을 접하게 된 그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라 인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식 투쟁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경 화북대학 사회학부에 수학하던 그가 의열단원 박건웅(1990년 독립장 추서)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선공산당재건동맹에 가입하고 레닌주의정치학교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조국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북경 화북대학 재학 당시에 그가 탐독했던 책이 바로 일어판 『불란서혁명사』였다는 사실에서 그의 사상적 신념을 읽을 수가 있다.

1950년 6.25사변 와중에서 행방불명이 된 박문희를 두고 월북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그가 6·25 사변 직전인 1950년 5월 1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경했다가 전쟁을 만났다. 우연히 전쟁의 와중에 휩쓸린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 남편을 여윈 모친을 비롯하여 부인과 2남(장남 승건은 1932년 3월 16일 5살로 동래에서 병사) 3녀를 남겨두고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자신과 형제들의 항일투쟁으로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어온 모친에 대해서는 늘 죄스럽게 생각해 온 효자였다. 그런 그가 사상적 이유로 모친과 가족을 버릴 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그가 월북했다면 외5촌 당숙 김두봉과 처남 김원봉이 북한정권의 실세로 활동하던 시기인 만큼 소리 없이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북한자료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셋째, 그의 사상적 기조는 급진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북한정권에 현혹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신간회 활동을 통해서 급진좌파의 속성을 경험했던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그는 김일성의 북한정권에 매력을 느낄 성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1948년 1월 좌익계 일간지였던 대중신문을 인수하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호를 대중일보로 개명하고 논조에서 좌경성을 배제했던 사실로도 입증된다.

넷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입수한 전쟁납북자명단인 「1956년도 실향사민 등록자명부」에는 “박문회(朴文燾), 57세, 언론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제동 85번지, 납치일 6·25 전쟁 중”으로 기록되어 있어 납북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이 있는 동래로 피난을 오다가 피납되어 북으로 끌려가다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전란의 소

용들이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 간 희생자인 것이다.

잊혀있는 항일투사 박문희에 대한 연구는 동생 박문호와 함께 부산지역 향토사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사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는 작업이 될 것이며, 부산지방 항일투쟁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도 일조가 될 것이다. 묻혀있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 후세에 전해야 하는 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참고문헌】

사료와 자료

- 『구한국관보』 17권, 20권.
- 『대한제국 직원록』 탁지부, 1908년.
- 경성 서대문경찰서 작성 ;
 - 京西高秘 제853호, 「保安法違反 被疑者 手配ニ關スル件」 1930년 2월 24일자.
 - 京西高秘 제1199호, 「保安法違反 被疑者 手配ノ件」 1930년 2월 26일자.
 - 사법경찰관 도경부보 黑沼力彌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정 笠井健太郎에게 보낸 「保安法違反 被疑者 朴次貞 所在不明ノ件」 1930년 2월 28일자.
 - 京西高秘 제8613호, 「朝鮮共產黨再建同盟事件發覺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16일자.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930년 11월 29일자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제 87호.
-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9年(1934年) 12月 作成, 「軍官學校事件ノ真相」.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月報』 제4권 5호,

1934.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제4권, 1935.
- 일본 내무성 특별고등경찰부, 「재일본 조선인 활동일지」, 1940.
- 동아일보 : 1929년 8월 14일자·9월 16일자·9월 26일자, 1930년 2월 21일자·4월 7일자, 1934년 1월 19일자·3월 15일자·6월 15일자·6월 23일자, 1935년 8월 24일자 호외.
- 조선일보 : 1930년 2월 15일자, 1935년 1월 1일자.
- 중외일보 : 1930년 4월 11일자.
- 중앙일보 : 1932년 2월 22일자.
- 조선중앙일보 : 1935년 8월 24일자 호외.
- 부산일보 : 1960년 2월 3일자.
- 조선일보사, 1986, 『조선일보 항일기사색인(1920-1940)』
- 동래고등학교 역사관 소장, 「졸업생 동향기록부」 1932.

단행본

- 강대민, 2004, 『여성조선의용군 박차정 의사』 도서출판 고구려.
- 김대상, 1981, 『부산경남언론사연구』 대왕문화사.
- 감만길·성대경 편, 1999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감만길, 2003,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 金三根, 1982, 『釜山出身獨立闘士集』 박재혁의사비건립동지회, 부산.
- 김삼웅, 2000,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출판.
- 김승일, 2001, 『조선의용군 石正 尹世胄 열사』 도서출판 고구려.
- 김영범, 1997,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 金在勝, 2002, 『만주벌의 이름 없는 전사들』 도서출판 해안.
- 김창순·김준엽,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권, 청계연구소.

- 김학준 편, 1988,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 김성숙 편』 민음사.
- _____, 1988. 『街人 金炳魯評傳』 민음사.
- 김학철, 2002.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연변인민출판사, 길림.
- 박문하, 1960, 『배꼽없는 여인』 평화문화사(재판 1971년)
- _____, 1963. 『인생 쌍화탕』 .
- _____, 1965. 『약손』, 태화출판사.
- _____, 1972. 『낙서인생』 아성출판사.
- 박태원, 2000,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재판).
- 송상도, 1955,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 스칼라노피 · 이정식 외 6인 공저, 1983, 『신간회연구』 동녘.
- 심지연, 1993, 『잊혀진 革命家の 肖像 - 金料奉研究』 도서출판 인간사랑.
- 윤효정, 2006. 『신간회 해소논쟁기 중앙본부 주도층의 계급연합적 민족협동전선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균영, 1996,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 이대수, 2001.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도서출판 고구려.
- 이성규, 2006, 『항일 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 상·하권, 지식산업사.
- 정정화, 1998, 『長江日記』 학민사.
- 한상도, 1994.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6, 『대륙에 남긴 꿈 - 김원봉의 항일역정과 삶』 역사공간.
- 한시준, 1997,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 韓洪九 · 李在華 편, 1988,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제3권, 京沅文化社.

- 三千里社, 1933 『朝鮮思想家總觀』 月刊『三千里』附錄.
- 동래와 해운대誌 편찬위원회, 1980. 『동래와 해운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2, 『軍史』 제5호.
- 동래지편찬위원회, 1983, 『동래지』
- 서울특별시, 1988, 『舊서울구치소 보존대상 시설현황 및 관련 자료 연구조사(II)』
-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제28~31권 「의열 단투쟁 IⅣ」 53권.
- 국가보훈처, 1998. 『해외의 독립운동사료』 17권 「요시찰인명부」
- 부산광역시, 2006. 『부산을 빛낸 인물』 2권.
- 朝光社, 月刊『朝光』 1941년 1월호.
- 외솔회, 1974, 月刊『나라사랑』 제16집.
- 楊昭全, 1987,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滙編』 上冊(1919~1945), 遼寧民族出版社, 沈陽.
- Edgar Snow, 1942, *The Battle for Asia*,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Cleveland and New York.

논문

- 강영심, 2003, 「항일운동가 박차정의 생애와 투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김경재, 「쟁쟁한 당대 논객의 풍모 - 長子風의 朴文燾 씨」 월간『삼천리』 1932년 8월호.
- 金光洲, 「上海時節回想記」 上, 『世代』誌, 1969년 12월호.
- 김영범, 1989. 「1930년대 의열단의 항일청년투사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 金義煥, 1990, 「일제하 부산의 학생항일 독립운동」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 金在勝, 2008, 「크리스찬 의열단 비밀단원 高仁德 烈士」 『부경교회사연구』 제13호, 부산경남기독교역사연구회.
- 金喜坤, 1994, 「李陸史와 義烈團」 『安東死學』 제1집.
- _____, 2004, 「이육사의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 朴文熹, 1930, 「新幹運動 - 조선은 어디로 가나?」 월간 『別乾坤』 제34호.
- _____, 「신간회 해소문제비판 - 전국적 해소와 시기」 월간 『삼천리』 1931년 1월호.
- _____, 「사회단체에 보내는 독촉장, 재조직기에 임한 노·동 총동맹」 월간 『해성』 1931년 5월호
- _____, 「조선운동의 신단계」 월간 『삼천리』 1932년 4월호.
- 이송희, 1996, 「박차정 여사의 삶과 투쟁」, 『지역과 역사』 제1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한상도, 1989, 「김원봉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운영 (1932~35)과 그 입교생」 『한국학보』 제57집.
- 홍기삼, 1974, 「이육사의 저항활동」 『나라사랑』 제16집.
- 최해군, 2005, 「부산을 살다 간 예술가 열전(46회) - 雨荷 朴文夏 선생」 『부산예총』
- 千國勳, 1982, 「조선 의열단원의 군사교육(1932~1936) -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의 단면사」 『군사』 제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宋連玉, 2005, 「性差別と植民地主義の克服をめざして」 『前夜』 3호, 影書房, 東京.

【국문초록】

이제까지 부산 동래출신 여류항일투사 박차정은 잘 알려졌으나 그녀의 두 오빠 박문화·박문호의 항일사적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지역사에서 이들의 이름은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여 실상은 묻혀있다.

동생 박문호는 1929년 3월 북경으로 망명하여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천진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일본 나가사키 우라카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을, 만기출옥 후 한 달만에 다시 레닌주의정치학교사건으로 동래에서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가석방된지 한 달만에 28살로 殉國死 했다.

형 박문화는 1925년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북풍회, 경성청년회, 동래청년연맹, 동래 혁파회를 통해서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했고, 1929년부터는 신간회 동래지부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조선민중을 계도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의열단장 김원봉·박차정 부부의 요청을 받아 1932년 10월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교지원자 5명을 선발해서 보고 자신도 뒤따라 남경으로 건너갔다.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민족자각운동을 활발한 전개하던 그는 경성지부 급진좌파의 공격을 받아 사임하고는 중국으로 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혁명간부학교의 막후인물로 중요한 위치에 활동했었다. 1933년 12월 신병인 천식이 재발하자 치료 겸 2기생 모집을 위해서 부산으로 잠입했다가 1기 졸업생 3명이 체포됨에 따라 배후인물로 체포되어 부산형무소에서 2년을 복역했다.

이들 두 형제의 항일투쟁의 목적은 조국독립에 있었으나, 해방 후 남북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좌파활동으로 인식되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 형 박문화는 진보적 민족주의자였고, 동생 박문

호는 민족적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항일투사였다.

본고는 이들 형제 중 장남 박문희의 항일사적을 발굴하여 부산 독립운동사의 지평을 넓히고, 독립유공자로 추서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핵심 주제어 : 박문희, 김원봉, 신간회, 의열단, 조선혁명간부학교.

【Abstract】

Park Mun-Hee's Anti-Japanese Struggle as a Member of Gallant Fighting Brigade

Kim, Jae-seung

This study examines Park Mun-Hee's activity toward Anti-Japanese Imperialism. He was a secret member of Gallant Fighting Brigade(Uiyol-Dan : 義熱團), and in particular its relations with Korea Revolution Staffs' Academy(Chosun Hyeukmyung Ganbu Hakkyo : 朝鮮革命幹部學校) in Nanjing, China.

Park Mun-Hee had been performed as a headquarter staff of New Body Society (Shingan-Hwae : 新幹會) during 1929 to 1930. Since that, Kim Won-Bong and his wife requested him with a special attention to collect student candidates for Korea Revolution Officers' Academy. Park Mun-Hee recommended and despatched 5 young men to Nanjing in October 1932. They had hard training there, and graduated this Academy in April 1933. Three young men he despatched returned back to Busan around June or July 1933, having special orders such as new student candidate collection and to organize underground networks in Korea from Kim Won-Bong.

They were arrested in advance, and than Park Mun-Hee was also arrested by the police in Busan because they confessed to the police how to go to Korea Revolution Staffs' Academy in Nanjing, China. For this matter, Park Mun-Hee received penal servitude for two years at Busan Local Court, and than into Busan Prison.

In the meantime, his anti-Japanese activity was not recognized

by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n Korea because he was a secret members of Gallant Fighting Brigade organized and led by Kim Won-Bong who had been a cabinet member of North Korean Government since 194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urnish relative material and evidence that they can be awarded the National Independence Decoration by Korean Government.

Key Words : Park Mun-Hee, Kim Won-Bong, Shingan-Hwae, Uiyol-Dan, Chosun Hyeukmyung Ganbu Hakkyo,